2007년도

연 차 보 고 서

제 47 기

(중소기업은행법)
제49조(연차보고서) 중소기업은행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4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중의 은행의 업무상태, 정부의 중요한 중소기업 금융정책을 개술하고 동기간의 금융실적을 분석하는 연차보고서를 국회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위원장 귀하

중소기업은행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중 당행의 업무상태와 정부의 중요한 중소기업 금융정책을 개술하고 동기간의 금융실적을 분석한 제47기 연차보고서를 이에 제출합니다.

2008년 4월 일

중 소 기 업 은 행

은행장 윤 용 로

목 차

제1장 중소기업의 동향 ····· 7

제2장 중소기업금융 정책과 실적 ····· 19

제1절 중소기업금융 정책 ····· 21

제2절 중소기업금융 실적 ····· 32

제3장 중소기업은행의 업무 ····· 35

제1절 자금조달 ····· 37

제2절 자금공급 ····· 45

제3절 주요 정책금융 ····· 55

제4절 주요 추진업무 ····· 61

제5절 재무상황 ····· 83

부 록 ····· 93

임원 명단 ····· 95

기구 도표 ····· 96

주요 일지 ····· 97

제1장

중소기업의 동향

1. 개 황

2007년 한국경제는 소비와 투자 등 내수부문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호조세를 지속하면서 4.9% 성장하여 전년의 5.0%와 비슷한 수준의 성장세를 시현하였다.

지출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가 4.4%,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각각 7.5%, 1.6% 증가한 반면 수출은 12.1% 증가하여 여전히 수출 위주의 성장세가 지속되었다. 또한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0.6%)과 건설업(1.8%)의 생산이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제조업(6.4%)과 서비스업(4.8%)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건설업은 전년의 감소(-0.1%)에서 증가로 돌아섰으나, 여전히 1.8%의 낮은 증가세에 머물렀으며, 서비스업은 금융보험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가 전년(4.2%)보다 확대되었으나, 제조업의 성장세는 전년(8.4%)보다 둔화되었다.

2003년경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부문별 격차는 2007년에도 지속되었는데, 전산업의 내수 출하는 4.8% 증가하여 전년의 6.1%보다 둔화된 반면, 수출 출하의 증가율은 전년의 10.0% 보다 확대된 10.5%에 달하여 내수와 수출간의 격차는 전년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 호조와 내수의 상대적 부진 뿐만 아니라, 중공업의 호조와 경공업의 부진, 대기업의 호조와 중소기업의 부진 등의 현상도 여전히 지속되었다. 2007년 중공업 생산은 8.2% 증가한 반면 경공업 생산은 1.8% 증가에 그쳤으며, 전체 제조업의 생산은 7.0% 증가한 반면 중소제조업 생산은 1.9% 증가에 그쳤다.

수출과 내수, 중공업과 경공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확대 등의 이러한 현상은 내수 부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2003년 소비자신용 버블 붕괴로 인해 침체에 빠졌던 민간소비는 2005년부터 어느정도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3~4%대의 미미한 증가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러한 소비의 장기부진 현상은 우리 경제구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2007년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생산은 14.0% 증가한 반면 전체 제조업에서 ICT를 제외한 부문의 생산증가율은 4.9%에 그쳤는데, ICT 산업은 기본적으로 고용창출능력이 낮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ICT 산업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경제성장의 과실이 가계를 비롯한 경제 전부문으로 확산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2007년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28.2만명 증가하였으며, 증가율로는 1.2%에 그쳐

고용여건의 개선폭도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또한 조세와 연금 등 비소비지출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 최근 수년간 주택가격 상승과 더불어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한 점 등도 소비부진의 또다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소비제약 요인으로 인해 내수의존적인 경공업, 중소기업 등의 경기가 상대적인 부진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우리 경제의 설비투자는 7.5% 증가하여 전년(7.6%)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였는데, 중소제조업의 설비투자 실시업체 비율은 2006년의 16.6%에서 2007년에는 17.3%로 소폭 상승하였다. 그러나 2007년 금융기관의 기업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시설자금 대출도 전년말 대비 38.2% 증가하였음을 감안할 때, 중소제조업의 설비투자 실시업체 비율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사실은 중소제조업 내부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다양한 부문에서의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5%에 육박하는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가 뚜렷하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7년 수출(통관기준)은 14.1% 증가하면서 5년 연속으로 두자릿수의 증가세를 나타내는 등 호조세가 지속되었으나, 원/달러 환율의 하락(-2.4%)으로 인해 원화 환산 수출액은 1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와 같은 환율하락 뿐만 아니라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격의 상승도 수출업체의 채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5%에 가까운 경제성장률을 체감하기 어려운 또다른 요인이 되었다.

2007년 물가는 환율 하락으로 인한 물가안정 효과, 국내수요 부진, 농산물 작황호조 등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2.5%), 생산자물가(2.7%) 모두 전년보다 상승세를 확대하였다. 반면 이러한 물가불안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정부의 규제 등에 힘입어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2006년 11.6% 상승했던 전국 주택가격은 2007년 들어와 3.1% 상승에 그쳤으며, 특히 전년에 24.1% 급등했던 서울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2007년 3.6% 상승에 그쳐 뚜렷하게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2007년 5.1% 증가에 그친 반면(2006년 13.4%), 기업대출은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하면서 전년대비 23.2% 증가하였다.

최근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격의 상승과 내수 부진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채산성 악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여파로 인한 미국경제 침체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등 대외환경의 악화로 국내경기 전망도 매우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에 수년간 급증해왔던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금융시장의 철저한 리스크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다.

2. 생 산

2007년 중소제조업 생산은 미약한 내수경기 회복과 원화강세로 인한 수출기업의 여건 저하 등으로 전년대비 1.9% 증가에 그쳤다.

연도별 중소제조업 생산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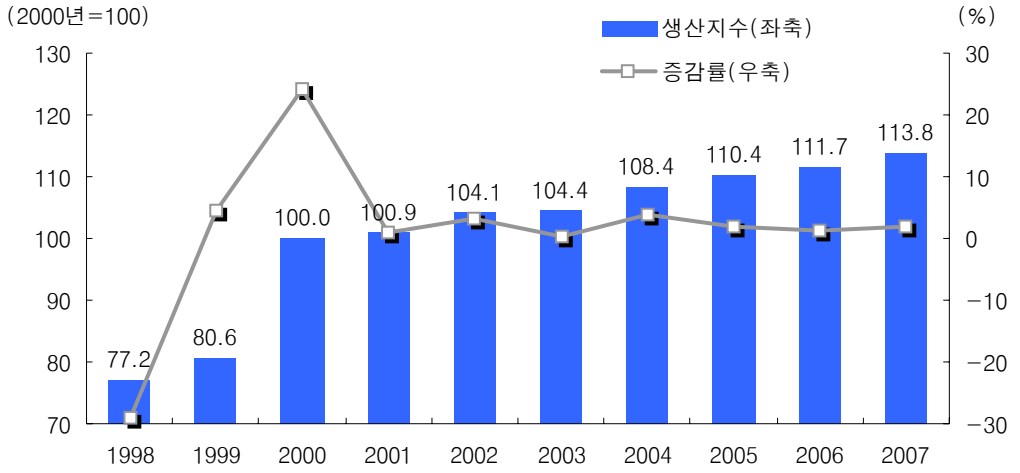
2000년=100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생산지수	77.2	80.6	100.0	100.9	104.1	104.4	108.4	110.4	111.7	113.8
증감률(%)	△29.0	4.4	24.1	0.9	3.3	0.2	3.8	1.9	1.2	1.9

주 : 전년대비 증감률

2007년 중소제조업 생산증가율은 2006년(1.2%)에 비해 개선되었지만, 2007년 광공업 생산증가율(2000년 기준)이 8.2%였음을 감안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연도별 중소제조업 생산지수 및 증감률 추이



주 : 전년대비 증감률

2007년도 중소제조업의 생산추이를 살펴보면, 3/4분기까지 내수경기의 회복지연으로 미미한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4/4분기에는 소비 및 투자의 회복에 힘입어 상승세가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는 2006년 4/4분기 생산이 감소(-0.3%)했던 점 등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생산증가의 신호로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중소제조업 생산추이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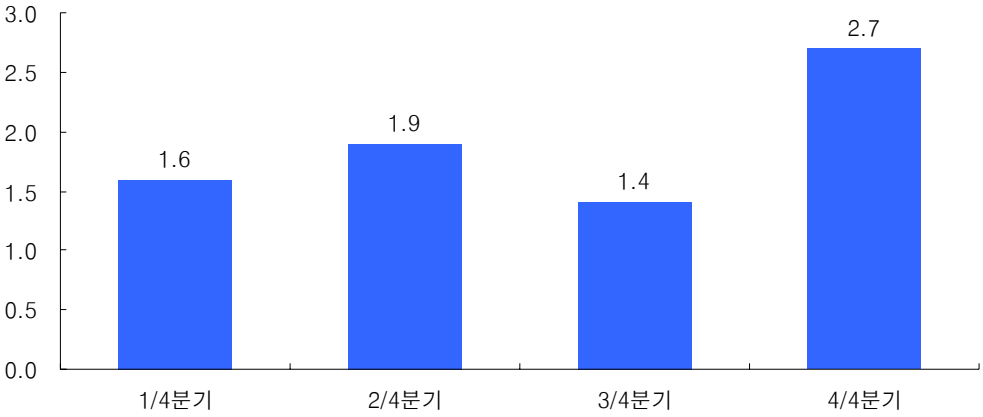
2000년=100

	1/4분기	2/4분기	상반기	3/4분기	4/4분기	하반기	년간
생산지수	110.6	117.1	113.8	111.7	116.0	113.8	113.8
증감률(%)	1.6	1.9	1.7	1.4	2.7	2.0	1.9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중소제조업 생산증감률 추이 (2007)

단위 : %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산업별로 보면, 수출이 호조를 보인 중화학공업은 전년대비 2.7% 증가한 반면, 생활관련 업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공업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에 머무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부문별 생산동향을 보면, 가공조립부문은 기계관련 업종의 생산호조로 전년대비 2.6% 증가하였고, 기초소재부문은 건설관련 업종의 생산증가에 힘입어 2.7% 증가한 반면, 생활관련부문은 섬유관련 업종의 부진으로 인해 전년대비 0.7% 감소하였다.

산업별 · 부문별 생산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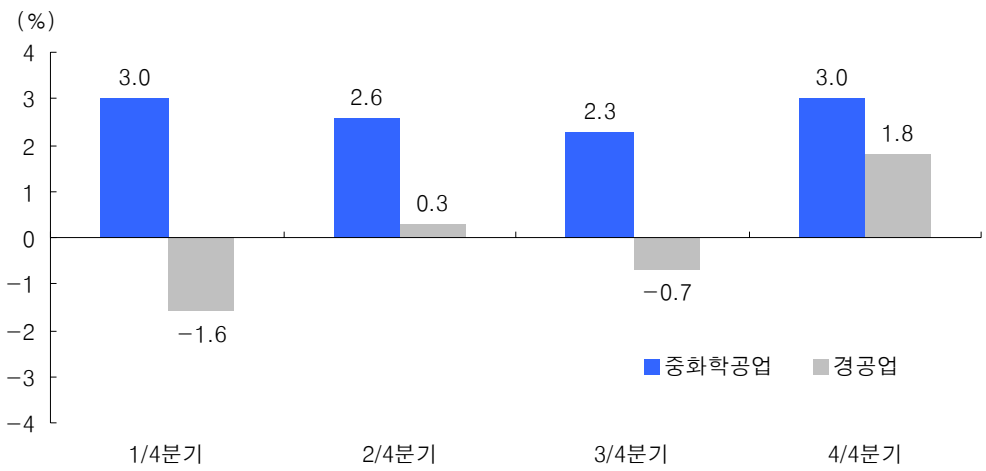
단위 : %

	2006년	2007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전체
중화학공업	2.9	3.0	2.6	2.3	3.0	2.7
경공업	△2.6	△1.6	0.3	△0.7	1.8	0.0
가공조립형	3.2	3.3	2.3	2.7	2.2	2.6
기계관련	2.5	3.9	3.7	6.0	3.8	4.3
전자관련	4.3	1.0	△1.0	△4.5	△1.7	△1.6
기초소재형	1.8	1.5	3.2	1.9	4.3	2.7
건설관련	1.8	2.7	3.5	2.8	5.2	3.6
화학관련	1.6	1.3	2.7	1.5	3.5	2.2
생활관련형	△3.2	△1.4	△0.8	△1.6	1.1	△0.7
소비관련	△1.6	△0.1	0.8	0.3	2.2	0.8
섬유관련	△8.0	△5.4	△2.4	△4.3	△1.2	△3.3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산업별 생산증감률 (2007)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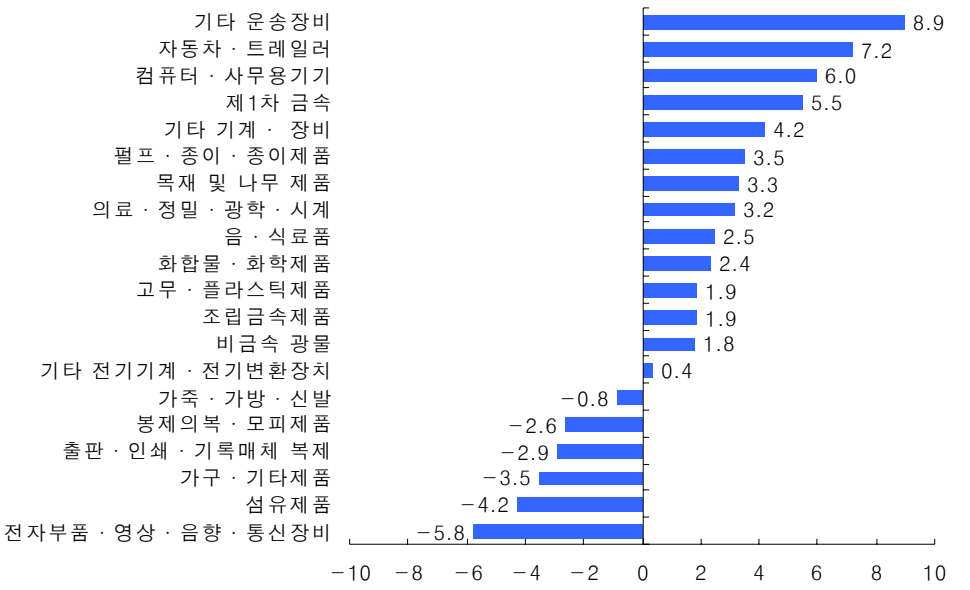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업종별로 보면, 기타 운송장비가 8.9%, 자동차·트레일러가 7.2% 증가한 것을 비롯하여 컴퓨터·사무용기기(6.0%), 제1차 금속(5.5%) 등의 업종은 전년도에 비해 생산이 증가한 반면,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가 5.8% 감소한 것을 필두로 섬유제품(△4.2%), 가구·기타제품(△3.5%) 등의 업종에서는 감소하였다.

업종별 생산증감률 (2007)

단위 : %



주 : 전년대비 증감률

3. 설비투자

2007년 중소제조업 설비투자업체 비율은 월평균 17.3%로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0.8%p)하였다. 2007년 1/4분기에 양호했던 설비투자가 3/4분기에는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연말에 이르러 전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산업별로 설비투자 비율을 살펴보면, 중화학공업이 경공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006년 대비 경공업의 설비투자 실시업체 비율이 1.0%p 상승해, 중화학공업(0.6%p)의 상승분을 상회하였다.

규모별로 보면, 2006년에 비해 소기업의 설비투자 비율이 0.8%p 상승에 그친 반면, 중기업은 2.5%p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중소제조업 설비투자 동향

단위 :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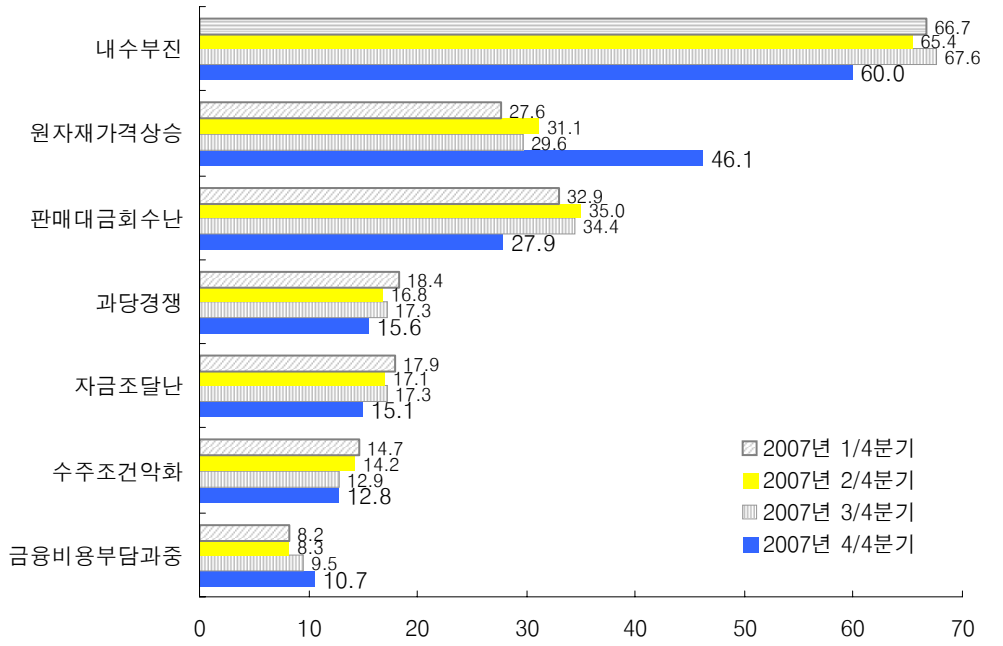
	2006년	2007년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간
전 체	16.6	16.1	17.2	19.2	17.5	16.2	19.7	16.6	16.6	15.1	18.0	17.2	18.6	17.3
증감차	1.5	3.4	2.5	2.8	2.5	0.2	1.3	△0.9	△2.0	△2.2	0.0	0.8	0.9	0.8
중화학공업	18.8	18.7	19.7	21.8	19.0	18.0	21.6	18.2	18.2	16.4	20.7	20.1	20.4	19.4
증감차	1.2	5.1	3.0	3.4	1.5	0.0	1.3	△2.2	△3.3	△3.7	0.5	0.7	0.7	0.6
경공업	13.5	12.7	13.9	15.6	15.2	13.7	17.2	14.3	14.3	13.4	14.4	13.3	16.1	14.5
증감차	1.7	1.2	1.4	1.8	3.8	0.5	1.5	0.8	△0.2	0.0	△0.7	1.0	1.1	1.0
소기업	14.3	14.6	15.5	17.0	14.9	13.8	16.8	14.1	14.6	13.0	15.8	14.7	16.4	15.1
증감차	1.5	4.5	3.6	3.6	2.6	△0.5	0.7	△0.9	△1.6	△2.3	△0.2	0.1	0.3	0.8
중기업	30.6	26.5	29.5	34.2	35.4	32.1	39.5	33.7	31.3	30.7	33.9	35.6	35.0	33.1
증감차	3.5	△0.8	△0.3	2.5	4.6	5.5	6.4	△0.5	△2.9	0.0	1.8	6.5	7.2	2.5

주 : 1. 증감차는 전년동월대비 비율차(%p)
2.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

한편, 2007년 중소제조업체들이 겪었던 경영애로 요인은 내수부진, 원자재가격상승, 판매대금회수난, 과당경쟁 등이었다. 2007년도 4/4분기의 경영애로요인을 살펴보면, 미약한 소비증가로 인한 내수부진이 60.0%, 고유가 및 식료품가격 급등으로 인한 원자재가격 상승이 46.1%, 판매대금회수난이 27.9%를 차지하였다.

중소제조업 경영애로 요인 추이

단위 : %, 복수응답



4. 협동조합

2007년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의 변화를 보면, 조합수는 2006년에 비해 92개가 늘어 총 892개가 되었다. 이중 지방조합은 7개가 늘었고, 사업조합은 73개가 증가하였다. 한편 조합원수는 총 66,310개 업체로 전년에 비해 0.6% 증가하였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변동 현황

단위 : 개

	2006년	2007년	증감차
조 합 수	800	892	92
연 합 회	26	27	1
전 국 연 합	183	191	8
지 방 조 합	348	355	7
사 업 조 합	243	316	73
조 합 원 수	65,881	66,310주)	429

주 : 중소기업단체 회원 3개 단체 포함 ('06년 4월 법개정에 따라 회원구조 확대)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제2장

중소기업금융 정책과 실적

· 제1절 중소기업금융 정책

· 제2절 중소기업금융 실적

제 1 절 중소기업금융 정책

2007년 우리 경제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약 5%의 성장을 이루었다. 이는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환율 불안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내수가 완만하게 살아나고 수출이 2년 연속 3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견조한 증가세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일부 우량기업을 제외하고는 글로벌 경기부진과 내수침체로 인한 판매 부진,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변동성 증가 등으로 악화되고 있다. 특히 2008년 바젤II 시행을 앞두고 금융권의 리스크관리가 강화되고 있어, 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은 더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울러 소외되기 쉬운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도 힘써 동반성장과 양극화 완화에도 최선을 다하였다. 이를 위해 2007년에는 「3만불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세우고,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혁신을 가속화하였다.

그간의 보호·직접·공급자중심·수시대응형 지원정책 기조에서 혁신주도·경쟁·협력·고객맞춤형 등으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혁신주도형 경제구조에 적합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수익성 향상과 활력 제고가 가능한 경영환경을 마련하는데 집중하였다.

우선 창의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군을 육성하였다. 이에 잠재혁신형 기업을 발굴·육성하여 혁신형 기업의 저변을 확충하는 등 3만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추진하였다. 또한 혁신형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가업승계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창업·혁신형기업·장수기업 지원체제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 벤처특별법 유효기간을 10년 더 연장하였다. 모태펀드의 재정출자를 통해 6,000억원 규모의 투자자금을 조성하여 벤처투자의 활력을 제고시켰다.

또한 중소기업 창업주가 점차 고령화되어감에 따라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제

도기반을 마련하였다. 정부·학계·업계로 구성된 가업승계 제도기반 TF를 구성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 상속세제 등 승계비용 부담 완화, 가업승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가업승계지원센터 설치 및 이를 통한 다양한 가업승계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다. 이외에도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세제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반영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영혁신 및 협력활동을 강화시키고자 R&D, 컨설팅, 정보화 지원은 물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영전략으로 정착시키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최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대기업 퇴직인력 활용 경영자문, 협업사업계획 승인제도 도입 등 경영여건 개선으로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다.

아울러 FTA 체결, 바젤II 도입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하여 정부는 자금·인력·판로 등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금융을 공급을 강화하였고 인력난 완화를 위한 인식개선에 노력하였으며, 판로확대를 위해 공공구매 확대 등을 추진하였다. 특히 신용보증지원 증대(41.3조원) 및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 확대(2조원) 등 정책금융의 시장보완 기능을 강화하였다.

소상공인·재래시장 및 여성·장애인 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경영 인프라 활성화에 주력하였다. 즉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조성하고자 5단계 창업프로그램 운영, 소상공인교육 종합계획 구축 등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토대를 마련해주었다. 또한 시설·경영 현대화 등 재래시장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여 상권을 활성화하고 특화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였다. 이 밖에도 여성·장애인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경영환경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였다. 특히 여성에게는 지식·감성기반 중심, 장애인에게는 장애유형별 특화업종 중심의 창업강좌를 통해 창업성공률을 제고하였으며,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및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여성·장애인기업 지원활동 공간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보다 활성화하고 수요자중심의 정책활용체계를 마련하고자, 인터넷 정보 포털인 SPi시스템 및 1357 콜센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현행 온라인 및 오프라인 체계에 더하여 앞으로 「휴대폰을 통한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1. 재정 및 기금자금의 공급

정부는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과 동반성장을 통한 양극화 완화를 위하여 재정 및 기금자금으로 4조 8,083억원을 공급하였다. 이를 지원용도별로 나누어 보면,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지원 3조 1,198억원, 산업기술지원부문 3,905억원, 산업진흥 및 고도화 부문 3,006억원,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500억원, 산업금융지원에 6,623억원, 중소기업일반 부문 2,851억원 등을 지원하였다.

가.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지원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기반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와 산업기반 등을 위하여 자금을 공급하였다. 부문별 공급실적을 보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지원에으로 1조 8,718억원, 중소기업·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지원에 9,485억원, 산업기반자금지원에 2,994억원 등을 공급하였다.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지원

단위 : 백만원

	2007년 예산	2007년 공급액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지원	1,880,800	1,871,879
중소·벤처기업 창업 지원	950,000	948,496
산 업 기 반 자 금	300,700	299,417
합 계	3,131,500	3,119,792

나. 산업기술지원 부문

2007년 한해 정부는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지원 부문에 3,905억원을 공급하였다.

신규고용창출의 중심이 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있어 구조조정과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R&D)」 부문에 3,600억원을 지원하였다. 이 중에서 기술혁신개발사업은 1997년부터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된 것으로 총 1,995억원을 공급하였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실 지원 등 3개의 세부사업으로 분류되며 올 한해동안 803억원을 지원하였다.

기술개발(R&D)지원

단위 : 백만원

	2007년 예산	2007년 공급액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199,490	199,490
산학연공동기술개발	80,300	80,300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39,210	39,210
기업협동형기술개발	10,000	10,000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	26,000	26,000
연구장비공동이용 클러스터	5,000	5,000
합 계	360,000	360,000

또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총 80억원을 공급하였다. 특히 신기술 아이디어 타당성 평가사업은 사업화 성공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신기술과제에 대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평가에 30억원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평가 등 기술혁신선도기업 육성사업 확대를 위해 30억원을 지원하였다.

기술개발 인프라

단위 : 백만원

	2007년 예산	2007년 공급액
신기술 아이디어타당성 평가	3,000	3,000
기술혁신선도기업육성	3,000	3,000
지방청시험평가기능고도화	2,000	2,033
시험연구기능강화	-	-
기술수요조사	-	-
기술지원사업운용평가	-	-
합계	8,000	8,033

중소기업의 「정보화 지원」은 중소기업의 경영시스템 혁신을 통해 비용절감 및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25억원을 지원하였다. 2007년부터 정보화혁신전문기업, 정보화경영체제지원, 재직자정보화교육과 불법기술유출방지사업 등 4개 사업이 정보화기반구축사업으로 통합되어 총 98억원이 공급되었다.

정보화지원

단위 : 백만원

	2007년 예산	2007년 공급액
중소기업정보화기반구축	9,780	9,780
생산공정디지털화	8,100	8,100
기술정보진흥원보조	3,627	3,627
정보화혁신클러스터	1,000	1,000
합계	22,507	22,507

다. 산업진흥·고도화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촉진과 동반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서 산업진흥 및 고도화 부문에 총 3,006억원을 공급하였다. 중소기업에 맞춤형 기능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인력구조 고도화 사업에 231억원을 지원하였다.

인력구조 고도화

단위 : 백만원

	2007년 예산	2007년 공급액
공고를 통한 기능인력 향상	7,000	6,939
중소기업 인력유입 인프라	16,210	16,139
합 계	23,210	23,078

또한 창업 및 생산구조 고도화를 위해 600억원을 공급하였는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및 기술 컨설팅이 날로 중요해지고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동부문에 200억원을 지원하였다. 이외에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여성기업 육성을 위해 81억원, 장애인기업 창업 및 판로지원 등 장애인기업 육성에 18억원을 공급하였다.

창업 및 생산구조 고도화

단위 : 백만원

	2007년 예산	2007년 공급액
중소기업 컨설팅	20,000	20,000
신기술창업인프라	7,500	7,500
중소벤처창업대학원운영	2,000	2,000
벤처캐피탈선진화	1,650	1,636
벤처촉진지구육성	2,100	2,100
창업보육센터건립	15,300	16,850
여성기업육성	8,120	8,120
장애인기업육성	1,800	1,800
합 계	58,470	60,006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총 2,064억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소상공진흥원을 운영하는 등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사업을 40억원 공급하였다. 이전에 수립한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대책('06.5)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재래시장 관련 부문에 1,905억원을 지원하였다.

소상공인 지원

단위 : 백만원

	2007년 예산	2007년 공급액
소상공인지원센터운영	13,926	11,421
소상공인경쟁력제고	3,478	3,988
상권정보시스템운영	500	492
재래시장경영혁신	29,000	28,914
재래시장시설현대화	161,606	161,606
합계	208,510	206,421

중소기업 정책지원을 위해 총 111억원을 지원하였다. 이중에서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협력체제구축을 위해 대·중소기업 협력증진사업 부문에 29억원을 공급하였다. 또한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후속조치 이행을 반영하고자 APEC 혁신센터 운영에 3.5억원을 지원하였다.

중소기업지정책 지원

단위 : 백만원

	2007년 예산	2007년 공급액
대중소기업협력증진	2,930	2,930
중소기업중앙회보조	6,500	6,500
중소기업조사평가	1,350	1,317
APEC혁신센터	350	350
합계	11,130	11,097

라. 무역 및 투자유치

정부는 중소기업 수출과 판로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에 500억원을 지원하였다.

중소기업의 무역 활성화를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에 160억원,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에 113억원,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 5억원, 무역촉진단 파견 80억원 등을 지원하였다. 이밖에도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른 공공구매실태조사, 직접생산확인 등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에 33억원을 공급하였고,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공동 A/S 콜센터 등 공동마케팅 기반조성사업에 28억원을 지원하였다.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단위 : 백만원

	2007년 예산	2007년 공급액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16,000	16,000
내수기업의수출기업화	11,369	11,270
무역촉진단파견	8,000	7,997
브랜드활성화지원	3,700	3,700
해외진출민간거점활용지원	3,000	3,000
마케팅촉진지원	1,400	1,383
공공구매지원	3,353	3,338
공동마케팅기반조성	2,800	2,800
해외시장개척요원양성	5,000	500
합계	54,622	49,988

마. 산업금융지원

정부는 중소기업 자금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산업금융 부문에 총 6,623억원을 지원하였다.

중소기업의 취약한 담보력 보완을 위해 신용보증기관에 3,300억원을 출연하였고, 자금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지방중소기업에 대해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 관련 보증지원에 259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판매대금 회수부진 및 거래위험 해소를 위해 매출채권보험계정에 95억원을 출연하였다. 특히 금년에는 IMF 당시 중소기업 특별신용보증재원으로 활용된 ADB/IBRD 차입자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2,969억원을 지원하였다.

산업금융지원

단위 : 백만원

	2007년 예산	2007년 공급액
신용보증기관출연	330,000	330,000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10,500	10,500
지역신용보증재단보조	15,400	15,400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	9,500	9,500
ADB/IBRD차입자금상환	296,899	296,899
합 계	662,299	662,299

바. 중소기업일반 등 기타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정책정보제공 확대 등 현장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총 2,851억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언제 어디서나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중소기업정책 정보시스템(SPi-1357) 고도화 사업에 27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기록물 유지관리를 위한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2.8억원을 공급하였다.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서 보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대구·경북지방청 등 지방청청사신축사업에 72억원이 지원되었다. 이외에도 정책조정기능 강화 부문에 18억원, 각종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에 613억원을 공급하였다.

중소기업일반 등 기타

단위 : 백만원

	2007년 예산	2007년 공급액
정책정보시스템고도화	2,765	2,705
정책조정기능강화	1,918	1,759
기록관리시스템구축	292	275
혁신능력개발	256	100
지방청청사신축	7,300	7,157
관사임차	330	330
제주계정이관경비	709	709
인건비및기본경비	51,447	61,338
중산기금전출금	210,711	210,711
합계	275,728	285,084

제 2 절 중소기업금융 실적

1. 중소기업대출 실적

2007년도말 현재 예금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355조 3,346억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65조 1,260억원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은행의 대출확대에 힘입어 특수은행은 15조 1,015억원, 시중은행은 43조 5,518억원, 지방은행은 6조 3,589억원이 각각 순증하였다.

2007년중 예금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증가율은 22.4%로 전년(17.7%) 대비 4.7%p 높아졌으며, 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문에 대한 대출운용이 제약되면서 은행권의 우량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큰폭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2007년말 현재 각 은행그룹별로 총기업대출에서 중소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시중은행은 전년 대비 0.1%p 증가한 87.9%, 지방은행은 0.7%p 감소한 96.0%, 특수은행은 0.9%p 감소한 96.7%를 차지하였다.

금융기관 중소기업대출실적

단위 : 억원, %

	2006년말 잔액			2007년중 증감(△)액		2007년말 잔액		
	총대출 (A)	중소기업 대출 (B)	비중 (B/A)	총대출	중소기업 대 출	총대출 (C)	중소기업 대출 (D)	비중 (D/C)
시 중 은 행	1,863,407	1,636,514	87.8	494,949	435,518	2,358,356	2,072,032	87.9
지 방 은 행	313,543	303,178	96.7	68,513	63,589	382,056	366,767	96.0
외 국 은 행	26,090	13,682	52.4	8,521	1,138	34,611	14,820	42.8
특 수 은 행	972,533	948,712	97.6	164,580	151,015	1,137,113	1,099,727	96.7
예 금 은 행	3,175,573	2,902,086	91.4	736,563	651,260	3,912,136	3,553,346	90.8

주 : 1. 대출은 원화대출금과 신탁대출금 합계 기준이며, 은행간대여금은 제외
2. 총대출은 총기업대출이며, 산업은행은 제외

자료 : 한국은행

2. 중소기업신용보증 실적

2007년도말 현재 총 신용보증실적은 39조 7,881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0.6% 증가하였다. 또한 총신용보증 잔액 가운데 중소기업신용보증 잔액도 39조 6,618억원으로 전년대비 0.4% 증가하였다. 총신용보증액 대비 중소기업신용보증액 비중은 0.2% 증가하여 99.7%를 차지하였다.

중소기업신용보증 실적

단위 : 억원, %

	2006년말 잔액	2007년말 잔액	증가율
총 신 용 보 증 액(A)	396,751	397,881	0.6
신 용 보 증 기 금	285,243	285,422	0.1
기술신용보증기금	111,508	112,459	0.9
중소기업신용보증액(B)	394,922	396,618	0.4
신 용 보 증 기 금	283,896	284,406	0.2
기술신용보증기금	111,026	112,212	1.1
비 율 (B/A)	99.5	99.7	

주 : 특별보증은 제외
자료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제3장

중소기업은행의 업무

· 제 1 절 자금조달

· 제 2 절 자금공급

· 제 3 절 주요 정책금융

· 제 4 절 주요 추진업무

· 제 5 절 재무상황

제1절 자금조달

1. 개 황

기업은행의 연도말 현재 자금조달 잔액은 전년도말에 비하여 15.3%가 증가한 119,304,171백만원에 달하였다.

자금조달 재원별 증감액을 보면, 먼저 예수금이 전년대비 0.38% 감소(141,021백만원 감소)하였으나 중소기업금융채권은 전년대비 32.7% 증가(10,087,156백만원 증가)하였다. 차입금은 전년대비 10.4% 증가(2,347,208백만원 증가)하였고, 자본은 전년대비 13.3% 증가(786,903백만원 증가)하였다. 기타재원은 전년대비 39.0%증가한 9,928,535백만원을 기록하였다.

한편 연도말 현재 자금조달 잔액별 구성비를 보면, 예수금이 30.9%, 중소기업금융채권이 34.3%, 차입금이 20.9%, 자본 및 기타부문이 13.9%를 차지하였다.

자금조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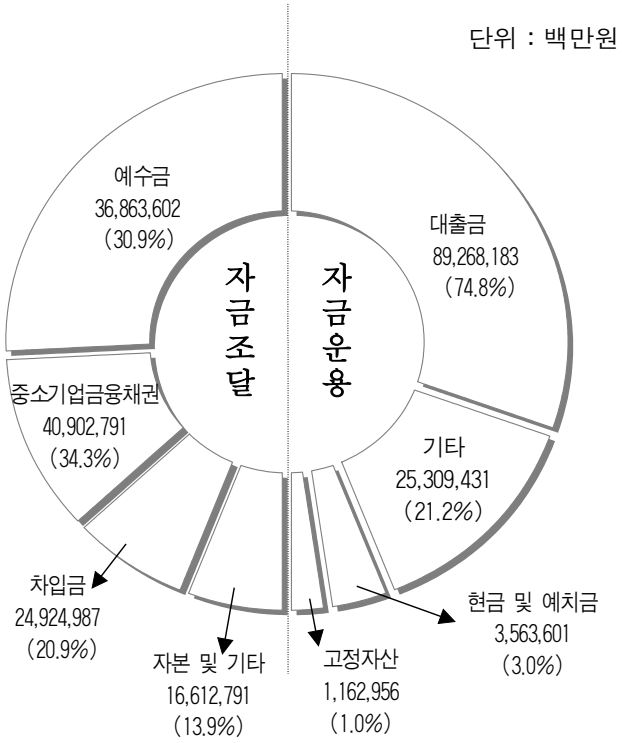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2006년말		2007년말		증감액(△)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예 수 금	37,004,623	35.8	36,863,602	30.9	△141,021
중소기업금융채권	30,815,635	29.8	40,902,791	34.3	10,087,156
차 입 금	22,577,779	21.8	24,924,987	20.9	2,347,208
(정부및기금)	(9,936,804)	(9.6)	(10,783,620)	(9.0)	(846,816)
(차관자금)	(48,772)	(0.1)	(18,762)	(0.1)	(△30,010)
(한은등기타차입)	(12,592,203)	(12.1)	(14,122,605)	(11.8)	(1,530,402)
자 본	5,897,353	5.7	6,684,256	5.6	786,903
기 타	7,140,412	6.9	9,928,535	8.3	2,788,123
계	103,435,802	100.0	119,304,171	100.0	15,868,369

이와 같이 조달된 자금은 대출금 74.8%, 기타부문(유가증권, 기타자산) 21.2%, 현금 및 예치금 3.0%, 고정자산 1.0%로 각각 운용되었다.

자금조달 및 운용현황

(2007년말 현재)



2. 예수금

2007년말 현재 당행의 예수금 잔액은 전년도 말보다 141,021백만원 감소한 36,863,602백만원을 기록하여 전체 자금조달 잔액의 30.9%를 차지하였다.

예수금 과목별로 연도말 잔액 비중을 보면 저축성예금 45.6%, 요구불예금 21.7%, 양도성 예금증서 19.1%, 수입부금 및 외화예금이 각각 9.1%, 4.1%를 차지하였다.

과목별 예수금현황

단위 : 백만원, %

	2006년말		2007년말		증감액 (△)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요구불예금	8,135,835	22.0	7,983,965	21.7	△151,870
당좌예금	215,409	0.6	91,001	0.2	△124,408
가계당좌예금	28,187	0.1	17,609	0.0	△10,578
별단예금	1,550,972	4.2	1,377,113	3.7	△173,859
보통예금	6,263,883	16.9	6,410,464	17.4	146,581
공금예금	76,797	0.2	86,792	0.2	9,995
기타	587	0.0	987	0.0	400
저축성예금	19,014,190	51.4	16,802,583	45.6	△2,211,607
저축예금	4,519,338	12.2	3,796,298	10.3	△723,040
정기예금	6,728,775	18.2	5,422,396	14.7	△1,306,379
정기적금	1,547,150	4.2	1,289,205	3.5	△257,945
장기주택마련저축	571,500	1.5	656,746	1.8	85,246
근로자장기저축	120	0.0	117	0.0	△3
근로자우대저축	175,099	0.5	22,163	0.1	△152,936
가계장기저축	1,050	0.0	372	0.0	△678
기업자유예금	5,471,158	14.8	5,615,284	15.2	144,126
수입부금	2,815,926	7.6	3,353,356	9.1	537,430
주택부금	215,240	0.6	159,287	0.4	△55,953
외화예금	1,523,325	4.1	1,515,185	4.1	△8,140
외화당좌예금	4,656	0.0	105,787	0.3	101,131
외화보통예금	919,544	2.5	922,358	2.5	2,814
외화통지예금	1,373	0.0	843	0.0	△530
외화정기예금	596,676	1.6	485,816	1.3	△110,860
외화별단예금	1,076	0.0	381	0.0	△695
양도성예금증서	5,300,107	14.3	7,049,226	19.1	1,749,119
계	37,004,623	100.0	36,863,602	100.0	△141,021

3. 중소기업금융채권

2007년중 중소기업금융채권 발행실적은 총 32,040,436백만원으로(전년도 발행실적 29,807,680백만원) 전년대비 7.5% 증가되었고, 연도말 중소기업금융채권 잔액은 상환액에 비해 발행액 증가로 전년도 말보다 32.8% 증가된 40,939,863백만원이 되었다.

중소기업금융채권 현황

단위 : 백만원

2006년말 잔액	2007년중		2007년말 잔액	증감액(△)
	발행	상환		
30,818,263	32,040,436	21,918,836	40,939,863	10,121,600

주 : 위험회피중금채평가 △37,090백만원 제외,
미발행중금채 18백만원 제외

4. 차입금

가. 정부차입금

기업은행의 정부차입금 잔액은 전년도말보다 674,860백만원이 증가하여 4,821,693백만원에 달하였다. 자금별 증감내역을 보면 연중 지방구조조정자금에서 1,384,791백만원, 산업기반기금에서 116,080백만원, 산업기술자금에서 40,000백만원 등 총 1,655,711만원이 차입·조달되었다. 반면 지방구조조정자금에서 732,331백만원, 산업기술자금에서 139,668백만원, 산업기반기금 79,673백만원, 지방재정자금 15,491백만원 등 총 980,851백만원이 상환되었다.

정부차입금 현황

단위 : 백만원

	2006년말 잔 액	2007년중		2007년말 잔 액	증감액(△)
		차 입	상 환		
지방구조조정자금	2,882,249	1,384,791	732,331	3,534,709	652,460
산업기반기금	485,759	116,080	79,673	522,166	36,407
산업기술자금	610,056	40,000	139,668	510,388	△99,668
지방재정자금	63,734	90,040	15,491	138,283	74,549
민간병원 신·증축자금	72,027	9,000	10,320	70,707	△1,320
복합화물터미널 지원자금	22,975	15,800	–	38,775	15,800
장례식장 지원자금	7,227	–	2,248	4,979	△2,248
신약개발 지원자금	2,806	–	1,120	1,686	△1,120
계	4,146,833	1,655,711	980,851	4,821,693	674,860

나. 기금차입금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비롯한 당행의 각종 기금차입금 잔액은 전년도말보다 171,956백만원이 증가한 5,961,926백만원에 달하였다. 이는 연중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에서 785,366백만원,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120,289백만원 등 총 1,193,030백만원이 상환되었으나,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에서 875,835백만원, 정보통신기반조성에서 125,500백만원,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91,489백만원 등 총 1,364,986백만원이 차입되었기 때문이다.

기금 차입금 현황

단위 : 백만원

	2006년말 잔 액	2007년중		2007년말 잔 액	증감액(△)
		차 입	상 환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3,778,895	875,835	785,366	3,869,364	90,469
정보통신기반조성차입금	312,124	125,500	21,844	415,780	103,656
정보통신진흥기금차입금	394,891	91,489	120,289	366,091	△28,800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260,155	42,917	28,747	274,325	14,170
중소기업육성기금차입금	185,577	48,615	43,440	190,752	5,175
과학기술진흥차입금	208,156	–	57,100	151,056	△57,100
환경오염방지기금	72,020	10,930	10,613	72,337	317
무역기금	55,516	31,875	28,310	59,081	3,565
협동조합공제기금	30,000	7,000	7,000	30,000	–
기타	492,636	130,825	90,321	533,140	40,504
계	5,789,970	1,364,986	1,193,030	5,961,926	171,956

다. 차관자금

연도말 현재 총 차관자금잔액은 18,76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1.1% 감소한 하였는데, 이는 JEXIM 차관자금의 상환 및 환율변동 등에 의하여 전년도 말보다 29,408백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차관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2006년말 잔액	2007년말 잔액	증감액(△)
JEXIM 차관자금	41,198	14,540	△26,658
IBRD 차관자금	6,972	4,222	△2,750
계	48,170	18,762	△29,408

라. 한은차입금 및 외화차입금

한국은행에서 무역금융, 할인어음 등 중소기업자금 지원실적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차입한도를 배정하는 증권담보차입금(총액한도차입금)은 1,833,406백만원으로 전년말 대비 17.6% 감소하였다. 외화차입금은 전년 대비 30.4% 증가한 2,871,163백만원을 기록하였다.

한은 및 외화차입금 현황

단위 : 백만원

	2006년말 잔액	2007년말 잔액	증감액(△)
한 은 차 입 금	2,226,354	1,833,406	△392,948
(증 권 담 보 차 입 금)	(2,226,354)	(1,833,406)	(△392,948)
(기 타 한 은 차 입 금)	(-)	(-)	
외 화 차 입 금	2,503,766	2,871,163	367,397
계	4,730,120	4,704,569	△25,551

마. 기타 차입금

기타 차입금 부문에서 매출어음이 356,338백만원 감소하였으나, 환매조건부채권 매도가 전년 대비 920,415백만원, 콜머니가 990,255백만원 각각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555,953백만원이 늘어났다.

기타차입금 현황

단위 : 백만원

	2006년말 잔액	2007년말 잔액	증감액(△)
콜 머 니	1,628,817	2,619,072	990,255
환매조건부채권매도	4,757,553	5,677,968	920,415
기 금 예 탁 금	8,425	10,046	1,621
매 출 어 음	1,467,288	1,110,950	△356,338
계	7,862,083	9,418,036	1,555,953

5. 자 본

연도말 현재 자본총액은 6,684,25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86,903백만원이 증가하였다.

자본구성 현황

단위 : 백만원

	2006년말 잔액	2007년말 잔액	증감액(△)
납 입 자 본 금	2,291,385	2,291,385	–
(보 통 주 자 본 금)	(2,025,758)	(2,025,758)	(–)
(우 선 주 자 본 금)	(265,627)	(265,627)	(–)
자 본 잉 여 금	6,751	6,751	–
이 익 잉 여 금	3,008,853	3,924,918	916,065
자 본 조 정	590,364	461,202	△129,162
계	5,897,353	6,684,256	786,903

제2절 자금공급

1. 개 황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전담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정부의 중소기업정책과 연계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새로운 제도 도입에 노력하였다.

금융권 최초로 「일반연대보증인 입보」 제도를 폐지하여 보증인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선진화된 금융관행을 만들고자 하였다. 또한 여신제도·규정을 현행 324개 규정에서 1개 규정과 4개 세칙으로 통폐합하여 고객이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도록 하였다.

중소기업금융의 리딩뱅크로서 고객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고자 「혼합금리, 상한부 변동금리」 등 대출금리 종류의 다양화, 「시설자금대출 취급기준」 개선, 「담보운용비율 체계」 개선, 「감정평가사의 본부 시가조사제도」 도입 등 여신제도 및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였다. 이와 더불어 시장금리 변동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는 변동금리 지표인 코리보(KORIBOR)를 보다 확대 운영하여, 중소기업에게 더 적절한 금리 제공은 물론 다양한 고객 니즈에 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수해, 폭설 등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특별지원자금」, 「결제성자금 스팟 판매」 등 각종 긴급지원자금을 조성하여 적기에 지원하고, 「경기도 환경오염방지시설자금」,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자금」 등 재정기금자금 신규유치와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는 등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다. 또한 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하는 「2007년 위너스론」, 경영혁신형 기업을 지원하는 「메인비즈론」 등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상품을 개발하여 혁신기업 지원 종합체계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생산단계에서 자금부족을 겪는 중소제조업체를 위해 계약발주서를 근기로

납품협력업체에게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기존의 「네트워크론」을 확대하여 보다 포괄적인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Pre-네트워크론」, 「싸이클론」 등을 개발 지원하였다. 그리고 경제 활성화의 초석이 되는 설비투자자금지원 확대는 물론, 「패밀리 대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대출 특별펀드 1조원 조성」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금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이외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반도체·디스플레이 상생협력대출」, 「KT패밀리대출」, 「한수원 New파워대출」, 「포스코패밀리대출」 등 새로운 방식의 금융지원과 「금리옵션부 기업운전자금대출」, 「부품소재전문기업 대출」, 「지자체 상생협력대출」 등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2007년중 기업은행은 대출금 33,771,284백만원, 투자 72,916백만원을 공급하였으며, 연도말 잔액이 대출금은 전년말 대비 11,169,958백만원 증가한 84,323,840백만원, 투자는 전년말 대비 27,995백만원 증가한 125,926백만원을 기록하였다.

자금공급실적

단위 : 백만원

	공 급			잔 액		
	2006년중	2007년중	증감액(△)	2006년말	2007년말	증감액(△)
대출금	28,764,812	33,771,284	5,006,472	73,153,882	84,323,840	11,169,958
투 자	77,884	72,916	△4,968	97,931	125,926	27,995
계	28,842,696	33,844,200	5,001,504	73,251,813	84,449,766	11,197,953

2. 지원대상별 대출현황

기업은행이 연중 공급한 대출금 33,771,284백만원을 지원 대상별로 구분하면, 중소기업 27,928,449백만원, 가계 4,528,300백만원, 공공 및 기타부문에 1,314,535만원이 각각 공급되었다.

한편 연도말 현재 대출금잔액의 구성비는 중소기업자금이 68,563,445백만원으로 전체의 81.3%를 차지하였으며, 가계자금은 14,517,235백만원으로 17.2%, 그리고 대기업 및 공공기타자금은 1,243,160만원으로 1.5%를 각각 차지하였다.

지원대상별 대출현황

단위 : 백만원, %

	2006년말		2007년중		2007년말		증감액(△)
	잔 액	구성비	공 급	회 수	잔 액	구성비	
중소기업자금	59,648,207	81.6	27,928,449	19,013,211	68,563,445	81.3	8,915,238
가 계 자 금	12,897,927	17.6	4,528,300	2,908,992	14,517,235	17.2	1,619,308
대기업 및 공공기타	607,748	0.8	1,314,535	679,123	1,243,160	1.5	635,412
계	73,153,882	100.0	33,771,284	22,601,326	84,323,840	100.0	11,169,958

3. 재원별 대출현황

기업은행이 연중 공급한 대출금을 재원별로 구분해보면, 금융자금이 29,600,300백만원으로 전체의 87.6%를 차지하였으며, 각종 기금 및 재정자금 2,906,344백만원, 차관자금 103백만원, 외화자금 1,264,537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연도말 현재 대출금잔액을 재원별로 보면, 금융자금대출이 71,343,700백만원으로 전체의 84.6%를 차지하였으며, 기금 및 재정자금대출이 9,815,989백만원으로 11.7%, 외화자금대출이 3,146,301백만원으로 3.7% 그리고 차관자금대출이 17,850백만원으로 0.02%를 차지하였다.

재원별 대출실적

단위 : 백만원, %

	2006년말		2007년중		2007년말		증감액(△)
	잔 액	구성비	공 급	회 수	잔 액	구성비	
금 융 자 금	61,353,840	83.9	29,600,300	19,610,440	71,343,700	84.6	9,989,860
기금및재정자금	8,892,508	12.1	2,906,344	1,982,863	9,815,989	11.7	923,481
외 화 자 금	2,851,122	3.9	1,264,537	969,358	3,146,301	3.7	295,179
차 관 자 금	56,412	0.1	103	38,665	17,850	0.0	△38,562
계	73,153,882	100.0	33,771,284	22,601,326	84,323,840	100.0	11,169,958

가. 금융자금대출

기업은행 대출금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금융자금대출의 2007년말 현재 잔액은 71,343,700백만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9,989,860백만원이 증가하였다. 금융자금대출 잔액을 자금별로 보면, 중소기업자금이 55,891,281백만원으로 금융자금대출 총액의 78.3%를 점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자 이외의 자에 대한 일반자금대출은 15,452,419백만원으로 21.7%를 차지하였다.

금융자금 대출실적

단위 : 백만원, %

	2006년말		2007년중		2007년말		증감액(△)
	잔 액	구성비	공 급	회 수	잔 액	구성비	
중소기업자금	47,848,165	78.0	24,065,441	16,022,325	55,891,281	78.3	8,043,116
일 반 자 금	13,505,675	22.0	5,534,859	3,588,115	15,452,419	21.7	1,946,744
계	61,353,840	100.0	29,600,300	19,610,440	71,343,700	100.0	9,989,860

나. 기금 및 재정자금대출

연도말 현재 각종 기금 및 재정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잔액은 9,815,989백만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923,481백만원이 증가하였다. 기금 및 재정자금의 대출잔액 구성을 보면,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이 3,750,217백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38.2%)을 차지하였으며, 지방구조조정자금 3,521,703백만원(35.9%), 산업기반기금 512,993백만원(5.2%), 정보통신진흥기금 362,142백만원(3.7%),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270,575백만원(2.8%),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195,414백만원(2.0%) 등의 순이었다.

기금 및 재정자금 대출실적

단위 : 백만원, %

	2006년말		2007년중		2007년말		증감액(△)
	잔 액	구성비	공 급	회 수	잔액	구성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3,671,989	41.3	832,640	754,412	3,750,217	38.2	78,228
지 방 구 조 조 정 자 금	2,838,911	31.9	1,409,367	726,575	3,521,703	35.9	682,792
산 업 기 반 자 금	474,686	5.3	113,377	75,070	512,993	5.2	38,307
정 보 통 신 진 흥 기 금	388,098	4.4	90,689	116,645	362,142	3.7	△25,956
IT설비투자확대지원자금	86,047	1.0	49,356	14,124	121,279	1.2	35,232
첨단IT컴플렉스조성지원자금	50,000	0.6	40,000	0	90,000	0.9	40,000
홈네트워크인프라구축자금	4,588	0.1	0	795	3,793	0.0	−795
과 학 기 술 진 흥 기 금	206,630	2.3	0	56,608	150,022	1.5	△56,608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181,215	2.0	47,280	33,081	195,414	2.0	14,199
산 업 기 술 자 금	149,040	1.7	23,133	28,499	143,674	1.5	△5,366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258,277	2.9	41,389	29,091	270,575	2.8	12,298
재활용산업육성기금	97,522	1.1	24,487	25,116	96,893	1.0	△629
전 력 산 업 기 반 자 금	70,000	0.8	0	0	70,000	0.7	0
민간병원재정시설자금	49,522	0.6	17,064	13,900	52,686	0.5	3,164
환 경 개 선 지 원 자 금	71,644	0.8	10,569	10,958	71,255	0.7	△389
무 역 기 금	55,510	0.6	31,435	28,351	58,594	0.6	3,084
서울시지방재정자금	62,650	0.7	90,560	15,248	137,962	1.4	75,312
여 성 발 전 창 업 기 금	10,854	0.1	0	5,921	4,933	0.1	△5,921
가 스 안 전 관 리 기 금	16,201	0.2	4,293	3,244	17,250	0.2	1,049
중전기기기술개발기금	28,553	0.3	8,600	5,395	31,758	0.3	3,205
장 례 식 장 재 정 자 금	6,884	0.1	0	2,232	4,652	0.0	△2,232
협 동 조 합 공 제 기 금	7,589	0.1	16,427	17,926	6,090	0.1	△1,499
신 약 개 발 재 정 자 금	2,626	0.0	0	1,230	1,396	0.0	△1,230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5,566	0.1	2,617	1,389	6,794	0.1	1,228
장 애 인 고 용 촉 진 기 금	13,227	0.1	4,808	728	17,307	0.2	4,080
국 민 체 육 진 흥 기 금	4,656	0.1	2,144	874	5,926	0.1	1,270
관 광 진 흥 개 발 기 금	12,200	0.1	8,025	1,429	18,796	0.2	6,596
문 화 산 업 진 흥 기 금	19,945	0.2	0	6,276	13,669	0.1	△6,276
플라스틱재활용기반구축자금	1,956	0.0	100	540	1,516	0.0	△440
국제출원비용지원자금	2,072	0.0	0	510	1,562	0.0	△510
특허기술이전촉진자금	1,463	0.0	0	151	1,312	0.0	△151
농어촌공업지원자금	175	0.0	0	95	80	0.0	△95
직업능력개발시설자금	525	0.0	1,980	175	2,330	0.0	1,805
서 울 시 식 품 진 흥 기 금	413	0.0	890	217	1,086	0.0	673
대 체 산 업 육 성 기 금	3,984	0.0	2,167	137	6,014	0.1	2,030
방 송 발 전 기 금	3,754	0.0	3,898	1,220	6,432	0.1	2,678
방 송 진 흥 기 금	500	0.0	1,900	0	2400	0.0	1,900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	22,975	0.3	12,090	0	35,065	0.4	12,090
축 산 발 전 기 금	10,061	0.1	15,062	4,704	20,419	0.2	10,358
계	8,892,508	100.0	2,906,347	1,982,866	9,815,989	100.0	923,481

다. 차관자금대출

2007년말 현재 기업은행의 차관자금대출잔액은 17,850백만원으로 전년도말 잔액 56,412백만원보다 38,562백만원이 감소하였다. 차관자금이 총대출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1%에서 0.02%로 감소하였다.

라. 외화자금대출

외화자금대출의 연도말 현재 잔액은 3,146,301백만원으로 전년도말 잔액 2,851,122백만원보다 295,179백만원이 증가하였다. 외화자금대출이 총대출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에서 3.7%로 감소하였다.

4. 용도별 대출실적

연중 기업은행은 운전자금으로 24,765,936백만원을, 시설자금으로 9,005,348백만원을 각각 공급하였다. 이에 따라 연도말 현재 당행의 총대출잔액은 운전자금 62,941,971백만원, 시설자금 21,381,869백만원으로, 운전자금은 전년에 비하여 5,930,363백만원, 시설자금은 5,239,595백만원이 각각 증가하였다. 운전자금 비중은 전년도말의 77.9%보다 3.3%p 감소한 74.6%인 반면, 시설자금 비중은 전년도말 대비 22.1에서 3.3%p 증가한 25.4%가 되었다.

운전자금의 재원별 구성은 금융자금이 59,464,250백만원으로 전체 대출총액의 70.5%를 차지한 반면, 각종 기금 및 재정자금은 2,682,960백만원, 외화대출금은 794,761백만원으로, 예수금 등 당행의 자체 조달자금이 운전자금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었다.

시설자금의 경우 금융자금이 11,879,450백만원으로 전체 대출총액의 14.1%를 차지하였으며, 이밖에 각종 기금 및 재정자금이 7,133,029백만원으로 8.5%, 외화대출금이 2,351,540백만원으로 2.8%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용도별 대출실적

단위 : 백만원, %

	2006년말		2007년중		2007년말		증감액 (△)
	잔 액	구성비	공 급	회 수	잔 액	구성비	
운 전 자 금	57,011,608	77.9	24,765,936	18,835,573	62,941,971	74.6	5,930,363
(금 융 자 금)	(53,416,438)	(73.0)	(23,304,827)	(17,257,015)	(59,464,250)	(70.5)	(6,047,812)
(기금및재정자금)	(2,376,636)	(3.2)	(1,173,540)	(867,216)	(2,682,960)	(3.2)	(306,324)
(외 화 대 출 금)	(1,218,534)	(1.7)	(287,569)	(711,342)	(794,761)	(0.9)	(△423,773)
시 설 자 금	16,142,274	22.1	9,005,348	3,765,753	21,381,869	25.4	5,239,595
(금 융 자 금)	(7,937,402)	(10.9)	(6,295,473)	(2,353,425)	(11,879,450)	(14.1)	(3,942,048)
(기금및재정자금)	(6,515,872)	(8.9)	(1,732,804)	(1,115,647)	(7,133,029)	(8.5)	(617,157)
(외 화 대 출 금)	(1,632,588)	(2.2)	(976,968)	(258,016)	(2,351,540)	(2.8)	(718,952)
(차 관 자 금)	(56,412)	(0.1)	(103)	(38,665)	(17,850)	(0.0)	(△38,562)
계	73,153,882	100.0	33,771,284	22,601,326	84,323,840	100.0	11,169,958

주 : ( )내는 운전 및 시설자금의 재원별 구성

5. 산업별 대출현황

산업별 대출실적을 보면, 제조업이 43,927,750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인 52.1%를 차지하였으며, 이밖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11,271,779백만원(13.4%),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이 5,252,970백만원(6.2%), 건설업이 4,677,493백만원(5.6%) 등을 차지하였다.

전년에 비해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의 대출금은 감소하였지만, 다른 산업의 대출금은 증가하였다.

산업별 대출현황

단위 : 백만원, %

	2006년말		2007년말		증감액
	잔 액	구성비	잔 액	구성비	(△)
농업·임업 및 어업	65,999	0.1	62,311	0.1	△3,688
광업	147,203	0.2	116,685	0.1	△30,518
제조업	38,409,819	52.6	43,927,750	52.1	5,517,931
(음식료품)	(1,345,409)	(1.8)	(1,419,698)	(1.7)	(74,289)
(섬유·의복 및 가죽)	(3,473,306)	(4.7)	(3,500,159)	(4.1)	(26,853)
(목재·나무제품 및 가구)	(1,517,734)	(2.1)	(1,715,935)	(2.0)	(198,201)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	(2,040,018)	(2.8)	(2,325,264)	(2.8)	(285,246)
(석유·화합물·고무·플라스틱제품)	(5,249,645)	(7.2)	(5,955,904)	(7.1)	(706,259)
(비금속광물제품)	(1,188,681)	(1.6)	(1,297,199)	(1.5)	(108,518)
(제1차금속)	(2,309,422)	(3.2)	(2,817,878)	(3.3)	(508,456)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장비)	(21,002,629)	(28.8)	(24,483,951)	(29.1)	(3,481,322)
(기타제조업)	(282,975)	(0.4)	(411,762)	(0.5)	(128,787)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234,653	0.3	137,067	0.2	△97,586
건설업	3,959,969	5.4	4,677,493	5.6	717,524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9,914,410	13.6	11,271,779	13.4	1,357,369
운수·창고 및 통신업	710,574	1.0	859,199	1.0	148,625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3,807,089	5.2	5,252,970	6.2	1,445,881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3,006,239	4.1	3,501,352	4.2	495,113
기타	12,768,052	17.5	14,425,985	17.1	1,657,933
계	73,024,007	100.0	84,232,591	100.0	11,208,584

주 : 카드론 제외

한편, 기업은행 대출금의 주요대상인 제조업에 있어서는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기타장비제조업 부문에 대한 대출실적이 24,483,951백만원으로 전체 대출총액의 29.1%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석유·화합물·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부문이 5,955,904백만원으로 7.1%, 섬유·의복 및 가죽제조업 부문이 3,500,159백만원으로 4.1%를 차지하였다. 대체로 경공업 업종은 작년에 비해 구성비중이 감소한 반면 중공업 업종은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6. 투자 현황

기업은행의 2007년말 현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잔액은 전년도에 비해 27,995백만원이 증가하여 총 125,926백만원에 달하였다. 주식인수는 연중 45,356백만원 신규투자 되었고 24,796백만원이 회수되어 연말기준으로 20,560백만원 증가한 85,376백만원을 기록하였다.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2006년말	2007년중		2007년말	증감액(△)
	잔 액	공 급	회 수	잔 액	
사 채 인 수	9,125	0	5,125	4,000	△5,125
전환사채인수	23,990	27,560	15,000	36,550	12,560
주 식 인 수	64,816	45,356	24,796	85,376	20,560
계	97,931	72,916	44,921	125,926	27,995

주 : 인수기타채권 제외

제3절 주요 정책금융

1. 시책별 중소기업자금 지원

기업은행은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부응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7년중 13,651,390백만원의 중소기업자금을 시책별로 지원하였다.

시책별 중소기업자금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지원실적		증감액(△)
	2006년중	2007년중	
중소·벤처 창업 지원 자금	6,289,187	6,216,950	△72,237
영세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자금	2,487,269	2,002,771	△484,498
유망 서비스업 지원 자금	2,447,526	2,190,421	△257,105
지식 기반 산업 지원 자금	2,259,387	1,752,414	△506,973
부품생산 중소기업지원자금	1,530,825	1,302,587	△228,238
기 술 개 발 자 금	103,604	186,247	82,643
계	15,117,798	13,651,390	△1,466,408

연중 지원된 시책별 중소기업자금의 주요 부문별 내용을 보면, 중소·벤처기업의 활발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6,216,950백만원을, 전반적인 중소기업 기반확대를 위한 영세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자금으로 2,002,771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유망서비스업 지원자금 2,190,421백만원, 지식기반산업 지원자금 1,752,414백만원, 부품생산 중소기업지원자금 1,302,587백만원 등을 지원하였다. 특히 기술개발자금은 전년대비 79.8% 증가한 186,247백만원을 기록하였다.

2.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및 창업 등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추천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중소기업의 자동화사업, 협동화사업, 중소·벤처창업, 소상공인 지원 등에 연중 832,640백만원을 공급하였다.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2006년말 잔액	2007년중 공급	2007년중 회수	2007년말 잔액
자동화사업	2,373,231	390,587	454,405	2,309,413
협동화사업	490,952	124,918	76,796	539,074
중소·벤처창업	385,206	161,857	72,673	474,390
농어촌공업지원	97,582	23,151	30,561	90,172
정보화사업	580	–	580	–
소상공인	169,182	34,864	54,096	149,950
지식기반	50,833	19,426	11,654	58,605
긴급경영안정	104,423	39,498	52,725	91,196
사업전환	–	38,339	922	37,417
계	3,671,989	832,640	754,412	3,750,217

부문별로 지원내용을 보면, 자동화사업에 390,587백만원, 협동화사업에 124,918백만원, 중소·벤처창업에 161,857백만원이 공급되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에 34,864백만원, 긴급경영안정에 39,498백만원, 올해부터 지원된 중소기업 사업전환에 38,339백만원 등이 공급되었다. 2007년말 현재 당행의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대출잔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2.1%가 증가한 3,750,217백만원에 달하였다.

3. 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

산업기반기금은 종전의 유통근대화자금, 중소기업기반조성자금 및 공업발전기금 가운데 생산성 향상과 환경보호 사업부문을 1996년부터 분리하여 지원하고 있는 자금으로, 당행은 2007년중 중소기업의 지역산업균형발전을 위해 113,377백만원을 공급하였다.

산업기반기금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2006년말 잔액	2007년중		2007년말 잔액
		공급	회수	
지역산업균형발전	474,686	113,377	75,070	512,993

4. 산업기술자금의 지원

산업기술자금은 한국기계공업진흥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발명진흥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개발 및 첨단기술개발사업 등에 연중 23,133백만원을 공급하여 2007년말 잔액 143,674백만원을 기록하였다.

산업기술자금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2006년말 잔액	2007년중		2007년말 잔액
		공 급	회 수	
시제품 및 첨단기술개발자금	149,040	23,133	28,499	143,674

5. 기타 재정 및 기금에 의한 지원

가. 정보통신진흥기금

기업은행은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정보통신용 설비구입 및 시설개체, 정보통신기술개발, 국책연구개발사업 등 정보통신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으로부터 추천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연중 90,689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나. 지방구조조정자금

기업은행은 지방중소기업의 시설개선을 통한 경쟁력제고, 지역간 불균형개선 및 지역 특화산업육성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시·도지부로부터 융자대상자로 추천받은 중소기업에 연중 1,409,367백만원을 공급하였다.

다. 무역기금

기업은행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홍보, 디자인 개발, 해외시장 공동진출 등을 통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무역기금을 재원으로 한국무역협회로부터 추천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연중 31,435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라.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기업은행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산업재해예방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추천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연중 47,28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마. 가스안전관리기금

기업은행은 가스안전관리와 가스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해 가스안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연중 4,293만원을 지원하였다. 이 기금은 한국가스안전공사, LP가스공업협회,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LP가스집단공급업협회, LP가스판매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융자대상자로 추천받은 중소기업에 공급되었다.

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기업은행은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재원으로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추천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연중 41,389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사. 환경개선지원자금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체의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사업 및 환경기술산업화 연구개발사업 등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개선지원자금을 재원으로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추천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연중 10,569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아.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기업은행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배출억제·사용합리화 및 대체물질의 개발·이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로부터 추천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연중 2,617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자. 서울특별시 지방재정자금

기업은행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중소제조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재정자금을 재원으로 서울보증재단으로부터 추천받은 중소제조업에 대하여 연중 90,56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차. 재활용산업육성자금

기업은행은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고 폐기물의 자원화를 촉진시켜 환경보존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을 재원으로 한국환경자원공사로부터 추천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연중 24,487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제4절 주요 추진업무

1. 국제업무 부문

가. 중소기업의 수출입활동 지원 강화

당행은 수출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과 원활한 수출입활동을 위하여 수출입 관련 금융지원 및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수출입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무역절차, 통관 및 관세환급,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투자 상담 등의 대외거래와 관련된 분야별 업무 상담데스크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한 것은 물론,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현지금융 지원강화를 위하여 은행권 최초로 중국지역본부를 설립하였고 중국 소주지점도 추가로 개점하였다. 또한 중국진출 중소기업에게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지기업 신용조사, 투자정보(China Letter), 법규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당행 컨설팅센터와 공동으로 중국현지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여 당행의 본격적인 중국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수출입업무 지원 및 무역금융 취급 확대를 위하여 외국환규정, 외국환업무취급기준 및 외국환수수료징수지침 등 관련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환전 및 송금, 수입신용장 발행, 각종 조회업무 등의 활성화는 물론 전자무역(e-Trade) 포탈 사이트를 보완하였으며, 제휴업무인 수출신용보증서 전자보증업무를 시행하였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해외기업 기본정보 검색,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서비스 등을 제공하였으며, 거래업체 무역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출입관련 법규, 수출입통관·관세환급, 수출보험, 무역금융, 외환서식작성법 등에 대한 대고객 「무역실무교실」을 연 2회 개최하였다. 또한 환리스크 관리 지원을 위하여 환율 Fax서비스의 수시 제공, 외화대출 환리스크 관리방법 안내, 환율전망 및 환리스크 관리 설명회 등을 추진하였다. 이외에도 고객 요청시 출장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환 Total 맞춤서비스」 업무를 확대하고, 수출입업무 관련 소송 등 해외 분쟁해결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반을 신설 운영하였다.

무역관련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입 업무지원을 위하여 해외송금 도착, 수출신용장 내도, 수출대금 입금 등을 고객 e-Mail 및 SMS 문자로 신속하게 통지하는 서비스를 시행하였으며, 환율 및 수출입관련 주요 제도변경 내용 등을 「외환 Fax 서비스」로 적시에 제공하였다. 아울러 외환우수고객 초청간담회 및 우량외환업체 CS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출입중소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나. 외국환업무 취급실적

당행은 연중 중소기업 수출입 실적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2007년말 현재 수출실적 22,722,123천달러, 수입실적 23,047,397천달러로 전년대비 각각 12.4%, 22.6%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외환실적은 37,895,930천달러로 전년대비 20.2% 증가하였다.

외국환업무 추진실적

단위 : 건, 천미달러

	2006년말		2007년말		증 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외 환	1,616,646	31,535,516	1,768,455	37,895,930	151,809	6,360,414
(당·타 발 송금)	(1,094,941)	(30,312,264)	(1,155,834)	(36,437,342)	(60,893)	(6,125,078)
(외화 수표 매입)	(10,804)	(40,681)	(18,138)	(145,326)	(7,334)	(104,645)
(외국통화 매매 등)	(510,901)	(1,182,571)	(594,483)	(1,313,262)	(83,582)	(130,691)
수 입 실 적	460,608	18,797,571	505,085	23,047,397	44,477	4,249,826
내국신용장개설	72,869	3,085,102	64,282	2,952,491	△8,587	△132,611
내국신용장어음매입	86,782	2,945,516	74,157	2,695,850	△12,625	△249,666
수 출 실 적	497,765	20,215,193	528,693	22,722,123	30,928	2,506,930

주 : 당·타발송금 건수 및 금액에는 송금방식 수출입실적(822,370건, 27,774,180천미불)을 포함

2. 신탁 · 채권 부문

당행은 대고객 만족도 제고와 영업실적 증대를 위해 최저가입금액 인하, 업무프로세스 간소화 등 신탁관련제도를 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익률 통보서비스, 펀드판매관련 불편신고센터 설치 등 다양한 수익증권 관련제도를 시행하였다.

또한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하여 직원교육을 업무 및 수준별로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였다. 이를 위해 서유럽, 일본 등의 선진시장은 물론, 라틴아메리카, 베트남, BRICs 등의 신흥시장에도 투자하는 등 투자 지역 및 대상을 다변화하였다. 아울러 여러 종류의 주식형 펀드와 새로운 수익구조를 가진 ELS펀드 등을 판매하여 고객니즈와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하였다. 또한 고객만족도 제고의 일환으로 어린이펀드 가입고객에 대한 글로벌리더 대장정 행사, 창립 46주년기념 대고객 사은행사, 우수 개인고객 투자설명회, 우수 거래기업 CFO 초청 세미나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였다.

특히 2005년 12월부터 새로 도입된 퇴직연금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콘텐츠(edu.ibk.co.kr) 개설, 퇴직연금 수수료율 인하, 퇴직연금 Best Investor 행사 등을 추진하였다.

가. 신 탁

당행의 신탁잔액은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적극적인 마케팅 추진으로 2007년말 현재 전년대비 63.6% 증가한 5,774,516백만원을 기록하였다. 특히 특정금전신탁 잔액이 4,746,793백만원, 퇴직연금신탁이 85,94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97.2%, 125.3% 증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반면 신탁대출은 2007년말 현재 전년대비 7,826백만원 감소하여 그 잔액이 28,760백만원을 기록하였다.

신탁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2006년말	2007년말	증감액(△)
기업금전신탁	6,485	5,307	△1,178
가계금전신탁	16,077	11,911	△4,166
일반불특정금전신탁	73	6	△67
적립식목적신탁	10,433	5,924	△4,509
가계장기신탁	25,170	11,340	△13,830
노후생활연금신탁	6,393	3,175	△3,218
국민주신탁	2,104	1,914	△190
특정금전신탁	2,407,540	4,746,793	2,339,253
개인연금신탁	539,854	482,607	△57,247
근로자우대신탁	3,965	1,805	△2,160
신종적립신탁	45,933	17,705	△28,228
단위금전신탁	18,895	200	△18,695
추가금전신탁	27,285	13,599	△13,686
신개인연금신탁	5,686	5,610	△76
신노후연금신탁	33,299	15,281	△18,018
퇴직신탁	270,242	283,465	13,223
연금신탁	71,695	81,929	10,234
퇴직연금신탁	38,141	85,945	47,804
계	3,529,270	5,774,516	2,245,246

신탁대출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2006년말	2007년말	증감액(△)
부동산저당	1,529	79	△1,450
채권담보	1,460	3,293	1,833
수익권담보	28,040	25,270	△2,770
증서대출	5,331	118	△5,213
어음대출	226	–	△226
계	36,586	28,760	△7,826

나. 수익증권 판매

연중 수익증권의 판매실적은 전년대비 33.1% 증가한 6,792,140백만원의 실적을 기록하였다.

개인용 MMF 익일거래제의 시행('07.3)으로 인해 2007년말 현재 당행의 MMF는 전년대비 108,120백만원이 감소한 2,350,819백만원의 실적을 기록하였다. 반면 국내외 증시 호조에 따른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적립식펀드 투자분위기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주식형 상품이 전년대비 226.4% 증가한 2,302,002백만원의 실적을 나타내었다. 또한 상품에 대한 고객의 Needs가 다양화되면서 파생상품형, 재간접펀드 등의 판매도 활성화되었다.

수익증권 판매현황

단위 : 백만원

	2006년말	2007년말	증감액(△)
채권형	167,127	131,968	△35,159
혼합형	1,345,666	1,343,062	△2,604
주식형	705,234	2,302,002	1,596,768
MMF	2,458,939	2,350,819	△108,120
파생상품형	361,011	597,295	236,284
기타	65,883	66,994	1,111
계	5,103,860	6,792,140	1,688,280

주 : 기타는 재간접투자형, 유전개발펀드 등의 판매실적

다. 중소기업금융채권

2007년말 중소기업금융채권 잔액은 일반 중소기업금융채권의 기관판매 호조에 힘입어 10,121,600백만원이 증가한 40,939,863백만원을 기록하였다. 또한 연중 중소기업금융채권 발행실적은 전년대비 2,232,756백만원 증가한 총 32,040,436백만원, 상환실적은 전년대비 8,093,250백만원 증가한 21,918,836백만원을 나타내었다.

중소기업금융채권 현황

단위 : 백만원

		2006년말 잔 액	2007년 실적			증감액(△)
			발 행	상 환	잔 액	
일 반 중금채	일 반	6,813,263	12,928,436	7,738,836	12,002,863	5,189,600
	기 관	24,005,000	19,112,000	14,180,000	28,937,000	4,932,000
정 책 중 금 채		0	0	0	0	0
계		30,818,263	32,040,436	21,918,836	40,939,863	10,121,600

주 : 위험회피중금채평가 △37,089백만원 제외

중소기업금융채권 발행실적을 채권종류별로 보면 할인채가 10,436,026백만원으로 발행총액의 32.6%를, 복리채가 12,821,153백만원으로 40.0%를, 이표채가 8,783,257백만원으로 27.4%를 차지하였다.

만기별로 보면 1년채가 22,657,126백만원으로 70.7%, 2년채가 3,879,367백만원으로 12.1%, 3년채가 4,705,453백만원으로 14.7%, 5년채가 288,490백만원으로 0.9%, 5년초과는 510,000백만원으로 1.6%를 차지하였다.

중소기업금융채권 종류별 발행내역

단위 : 백만원, %

	할 인 채	복 리 채	이 표 채	합 계	구성비
1 년 채	9,653,388	12,364,062	639,676	22,657,126	70.7
2 년 채	350,617	100,875	3,427,875	3,879,367	12.1
3 년 채	432,021	39,100	4,234,332	4,705,453	14.7
5 년 채	–	7,116	281,374	288,490	0.9
5 년 초과	–	310,000	200,000	510,000	1.6
계	10,436,026	12,821,153	8,783,257	32,040,436	100
구 성 비	32.6	40.0	27.4	100	

3. 신용카드 부문

당행은 신용카드사업 부문에서 성장성 및 수익성 향상, 건전성 제고를 목표로 설정하고,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신규 수익고객 발굴, 핵심 우량고객 유치, 유효회원 증대 등을 추진하는 등 영업기반 확충에 주력하였다. 제도적으로도 회원자격기준과 이용한도운용기준의 변경, 확인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회원수 및 이용대금 증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다양한 고객니즈 충족과 틈새시장 개척을 위하여 당행은 특화상품 및 제휴카드 발굴에도 전력을 기울였다. 특히 연구비카드 시장에 진출한지 3년만에 1조 6,166억원 규모의 카드매출 실적을 달성하여 시장점유율이 42%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단체에 배정하는 각종 보조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관리하기 위해 발급되는 「보조사업비카드」, FUN(외식), WELL(쇼핑), TOP(포인트), COOL(해외직불겸용)의 핵심서비스를 제공하는 「I am 카드」, 고객선호 서비스를 요일별로 특화한 「레인보우카드」, 카드이용에 따른 적립 T포인트로 이동통신료를 차감시켜주는 「T 포인트 카드」 등의 신상품을 출시하여 시장의 큰 호응을 얻었다.

당행의 2007년말 현재 신용카드 회원수는 전년대비 19.0% 증가한 4,555천좌를 기록하였다. 또한 이용대금은 전년대비 23.4% 증가한 25조 9,683억원을 나타냈으며, 수수료 수입도 전년대비 15.3% 늘어난 4,577억원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반면 카드론은 전년대비 29.8% 감소한 912억원을 기록하였다.

이밖에도 신용관리시스템 강화로 부실회원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적극적인 한도관리를 통해 잠재부실회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디마케팅 전략도 꾸준히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07년말 현재 신용카드채권 연체비율은 1.12%(1월 이상 연체 기준, 카드론 포함)로 2006년말 연체비율 1.23%에 비해 0.11%p 낮아졌다.

신용카드업무 취급실적

	단 위	2006년말	2007년말	성장률(%)
회 원 수	천 좌	3,829	4,555	19.0
(신 규 회 원 수)	억 원	(1,261)	(1,416)	(12.3)
신 용 카 드	억 원	119,795	147,147	22.8
이용대금 구 판 매	억 원	90,684	112,536	24.1
합 계	억 원	210,479	259,683	23.4
수 수 료 수 입	억 원	3,971	4,577	15.3
카 드 론	억 원	1,299	912	△29.8

주 : 1. 2006년 4월 이후 가맹점 관리는 BC카드사로 이관
2. 수수료는 카드론 포함, 구판매수수료는 제외

4. 중소기업지원 사업

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당행은 연초 전국의 거래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2007년도 경제전망 및 중소기업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동 설명회는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리·환율 등 거시지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은행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CEO 1,869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2007년 1월 8일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등 전국 9개 지역을 은행장이 직접 순회하면서 경제동향 및 전망에 대한 정보 제공, 중소기업자금 지원계획 등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생산현장을 돌아보며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제도개선에 반영하였다.

나.「중소기업인 명예의 전당」 제도 시행

당행은 불굴의 개척정신으로 기업을 일으켜 사회적 책임을 다한 중소기업 경영자를 기리기 위해, 2004년에 「중소기업인 명예의 전당」을 본점 1층 로비에 설치하였다.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총 14명의 중소기업인을 헌정하였다. 2007년도의 헌정대상 기업은 (주)지엔텍홀딩스 정봉규 회장, (주)일삼 정우철 회장, 한미반도체(주) 곽노권 회장 등 3인이다. 당행은 이들을 성공한 중소기업인상으로 정립하고, 이들 기업의 우수실천경영사례를 중소기업경영의 벤치마킹 모델로 활용할 수 있도록 「Success Story」로 발간하였다.

다.「중소기업 명장」 선정

당행은 거래기업과의 Relationship을 강화하고 우수기능인에 대한 사기진작과 중소기업 기능인력 육성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2004년부터 「중소기업 명장」을 선정하였다. 중소기업 명장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자기분야에서 최고수준의 기능을 가진 생산직 근로자로서, 당행은 동일 기업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회사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를 발굴하여 표창해왔다. 현재까지 네차례에 걸쳐 총 54명의 중소기업 명장이 선정되었다. 선정자에겐 선정패를 수여함은 물론 Royal VIP 대우를 해주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해준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에게 유용한 경영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IBK EverBiz Club 세미나」, 「기은최고경영자클럽」 등을 개최하였고, 우수 중소기업과의 릴레이션십을 강화하고자 중소기업 모범직원에게 은행장 표창 및 국외 연수를 지원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당행 본점 로비에 상설 전시장을 운영하였다.

5. 중소기업 연구 및 컨설팅서비스의 활성화

가. 중소기업 조사연구의 충실화

당행의 기은경제연구소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중소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영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실효성 높은 중소기업육성과제를 발굴하고자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중소기업 분야의 주요 조사연구실적을 보면,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기업승계에 관한 연구」, 「한국중소기업의 베트남 진출현황 및 투자성과 증대방안 연구」,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기업간 대금결제 관행개선을 위한 네트워크론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 세제실태와 개선방안」, 「중소기업의 수익성 제고 방안」, 「바젤II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 방안」, 「신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10대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연구」 등 중소기업의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심도있는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당행의 강점분야인 중소기업 금융 및 정책의 선진화 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중소기업 발전에 앞장서기 위해, 2006년 한국중소기업학회·매일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희망중소기업 포럼을 발족하여 2007년말까지 성황리에 10회의 행사를 개최하였다.

또한 당행이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은행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통합법의 핵심내용과 시사점」,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 「당행의 민영화 전략 및 향후 발전 방향 연구」, 「영업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사례연구」, 「예수금 확대전략과 시사점」, 「당행의 해외진출 방안」, 「당행의 변화관리 전략」, 「퇴직연금시장 동향 및 전망과 시사점」, 「금융기관의 환경경영 트렌드와 시사점」 등의 핵심 전략자료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향후 은행경영 환경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매년 「경영환경 전망과 전략적 시사점」을 발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게 도움되는 경제·금융시장 동향 정보를 매월 「IBK 금융경제브리프」를 통해 적시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당행의 중소제조업 부문의 실물경제동향을 조사하는 「중소제조업 동향조사」, 중소제조업에 대한 분기별 경기변동실적 및 예측을 조사하는 「중소제조업 경기전망조사」, 중소

기업의 경기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소기업 경기종합지수」 등을 실시하여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수립 및 당행의 금융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를 제공하였다.

나. 종합 컨설팅업무 수행

당행의 컨설팅센터는 컨설팅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고 경영컨설팅, 기업승계컨설팅, 세무컨설팅은 물론 창업지원, 법률, 회계 등 다양한 컨설팅 업무를 개발하여 중소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금융권 최초로 기업승계컨설팅을 개발·실시하여 기업승계에 필요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세무상 부담과 경영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여 지속가능한 중소기업 경영의 초석을 마련해 주었다. 또한 27개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통해 경영활동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기업에게 꼭 필요한 개선사항이나 추진전략을 상세히 설계해주어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특히 금융권 최초로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창업강좌」, 「해외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현지법인의 성공적인 정착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이밖에도 경영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대일 레슨 형식의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였고, 「기업진단컨설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컨설팅 서비스의 시스템화를 구축하였다.

컨설팅업무 취급실적(2007년)

단위 : 건

구분	경영컨설팅	기업승계컨설팅	세무컨설팅	창업컨설팅	경영정보제공
실적	31	27	63	432	389

주 : 창업컨설팅은 창업희망자 대상 창업실무 교육실시 수강인원

6. 경영합리화 부문

당행은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고객서비스 개선과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업무개혁 및 경영합리화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중소기업전담 금융기관으로서 차별화되고 종합적인 중소기업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가. 조직 정비를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당행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부 조직을 10사업본부 4사업단 1연구소 42부서로 개편하여, 유사업무 통합 및 부서간 업무분장 조정을 단행하였다. 또한 지역본부는 글로벌 시대를 대비하여 중국지역본부를 신설하여 기존 15개에서 16개로 확대되었으며, 이를 통해 보다 강화된 영업점 지원체제를 구축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비이자수익 확대를 위해 카드사업단을 카드사업본부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지식경쟁력 강화를 통한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종합기획부 지식경영팀을 신설하였다. 또한 오직 고객(Only Customer)의 경영원칙을 실천하기 위해 PB사업부를 PB사업단으로 확대하였으며 고객만족추진단을 신설하였다. 이와 함께 미래 성장역량 강화를 위해 인재개발원, 프로젝트금융부, 카드마케팅부, 점포전략부 등을 신설하였고, 당행의 기업금융 강점을 보다 견고히 하기 위해 기업금융센터 3개 및 심사센터 3개 등을 신설하였다.

이외에도 당행의 변화된 위상과 비전을 고객들에게 전달하고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IBK 기업은행'의 새로운 CI를 선포하였다.

나. 영업점 경쟁력 강화 도모

당행은 영업점 경쟁력 확보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전영업점을 대상으로 입지, 점주현황, 고객특성, 경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하고 기존 점포별 분류유형을 재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점포별 특성에 맞는 영업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맞는 마케팅 지원 및 점질에 부합하는 인력 재배치를 실시하였다.

또한 성장지역을 중심으로 71개의 점포를 신설하고, 7개의 점포를 이전하는 한편, 고객의 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385개의 무인자동화코너를 설치하였다.

점포 현황

단위 : 개

	2006년말	2007년 중					2007년말
		신설	이전	승격	격하	폐쇄	
지점	434	58	7		6		485
출장소	23	20(6)					44
계	457	78(6)	7		6		529

주 : 본점은 1개점으로 계상
주 : 출장소 신설에 지점에서 격하된 분 포함 : ( ) 표시
주 : LS전선 전주공장은 06년 신설되었으나 07년 점포코드 부여로 점포로 등록.

무인자동화코너 현황

단위 : 개

	2006년말	2007년 중			2007년말
		설치	폐쇄	순증	
점내	429	64		64	493
점외	436	161	46	115	551
계	865	225	46	179	1,044

ATM·CD 설치 현황

단위 : 대

	2006년말	2007년 중			2007년말
		설치	철수	교체	
ATM	1,952	385	25	371	2,312
CD	936	90	81	27	945
계	2,888	475	106	398	3,257

다. 능력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당행은 조직의 성과향상 및 신뢰와 화합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동료평가 및 자기평가를 동시에 실시하는 「360도 다면평가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또한 「Score Card제」를 신설하여 성과 및 역량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개인별로 점수화하여 승진심사에 반영하고 있으며 「IBK PRO-COACH 제도」를 활성화하여 직원의 역량개발 마인드 제고 및 인사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였다.

이와 함께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영업력 극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점주환경과 지행장 및 팀장의 역량에 따라 최적의 인력조합을 구성하여 전략적으로 배치하였고 핵심 수신전략점포에 우수팀장을 전격적으로 배치하였다. 직원의 사기진작을 통해 경영목표 달성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장기승진누락자의 재기기회 확대, 우수 여성인력의 발탁인사 확대, 「이달의 예금왕」 표창 신설 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효율적인 인력수급을 위해 신입행원 선발시 부서별 전문인력 수요조사 및 요구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채용시 반영하였으며, 지방할당제를 실시하여 지방소재 대학의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해당지역의 영업활성화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신입행원을 전략점포에 집중 배치하여 미래의 핵심인력으로 육성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최적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은행 IR을 겸한 채용설명회를 개최하여 강한 승부근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맞춤형 인재를 채용하였고 신사업 및 핵심사업분야의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하였다. 이밖에도 인사고충을 해결해주고자 「찾아가는 인사상담」 시행, 계약직원의 정규직 전환 대폭 확대, 매주 수요일 7시에 전직원이 퇴근하는 「가정의 날」 시행, 「IBK 효행상」 표창 실시 등을 통해 가정과 은행이 하나되는 따뜻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다.

한편 전직원의 청렴의식 및 반부패 실행력을 제고하여 청렴은행의 리딩뱅크로 도약하고자, 부패방지 및 청렴도 개선을 위한 집합교육 및 특별 감찰활동을 실시하였고, 「청렴도 Feedback System」의 활성화, 청렴문구를 삽입한 청렴명함 사용, 금융부조리 근절 의지를 나타내는 「나의 다짐」 청렴확인서 작성 등을 실시하였다.

당행은 민영화와 종합금융그룹화에 대비하여 성과지향, 현장중심의 신인력육성체계 구축을 위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또한 고객만족경영 정착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雄飛 IBK 2007 연수」를 실시하여 전직원의 각오와 의지를 결집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현장중심의 마케팅역량을 효율적으로 강화하고자 사이버연수원의 컨텐츠를 전면 개편하는 등 인력육성을 위한 효율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라. IR활동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2003년 12월 한국과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에 동시 상장한 당행은 2004년을 상장원년으로 삼아 기업은행 알리기에 주력하였고, 2005년 이후에는 제대로 평가받는 기업은행을 만들기 위해 「신뢰받는 IR, 찾아가는 IR, 듣는 IR」의 슬로건 아래 국내외에서 다양하고 차별화된 IR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2007년에는 당행의 재무안정성, 수익성 및 성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Moody's로부터 Aa3, S&P로부터 A, FitchRatings로부터 A+ 등의 국내 최고 신용등급을 받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투자자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분기별 실적발표회를 개최하였고, 뉴욕, 런던, 홍콩 등 국제금융도시에서 경영진이 정기적으로 Non-deal 로드쇼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신규 우량투자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투자자기반을 획기적으로 넓혔다.

투자가가 모이는 곳에는 언제, 어디라도 「찾아가는 IR」을 실천하기 위하여, 4대 메이저 IR컨퍼런스를 포함하여 매년 10여회의 IR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있다. 국내 기관투자자를 직접 찾아가는 「방문 IR」을 실시하고, 국제회의 참석시마다 투자자 면담을 실시하였다. 투자자들에게 경영실적 및 현황을 설명함과 동시에 시장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하는 Two-Way 커뮤니케이션을 실천하기 위하여 시장관계자 및 오피니언 리더와의 간담회를 통해 「듣는 IR」도 실시하였다. 또한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세지, 컨퍼런스 콜 등을 이용하여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는 「상시 IR활동」과 실적발표 직후 실무진 컨퍼런스 콜, 라운드테이블 Q&A 등 「기업은행 맞춤 IR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IR활동을 통해 당행의 경영현황과 관련 정보를 시장에 전달함과 동시에 시장의 의견을 경영에 수렴해 나감으로써 기업은행과 시장의 눈높이를 맞추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였다.

마. 리딩뱅크 진입을 위한 IT 인프라 강화

당행은 리딩뱅크 진입을 위한 IT 인프라 강화를 위해 본·지점 IT 관련 업무문의를 한곳에서 처리하는 「IT업무상담센터」를 구축하고, IT 컨설팅 및 비즈니스 혁신사항을 수렴 후 조치하는 「IT혁신협의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ISO20000, ISO27001, 바젤II 등 국제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IT업무관련 내규」를 정비하였다.

보다 강화된 IT인프라를 바탕으로 본부와 영업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BPR 시스템을 추가 개발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해왔으며, 대고객 맞춤 서비스가 가능한 최첨단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통합 CRM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여 대고객 마케팅 기반 확보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와 더불어 IBK와 자회사간의 지식교류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INET」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지역본부 및 영업점의 효율적인 실적관리를 위해 「영업점 예상실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였다.

고객만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영업점 니즈에 적합한 「찾아가는 맞춤 IT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현업부서의 신뢰도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IT개발 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하였다. 이외에도 「웹단말 모바일 승인시스템」, 「FAX전송 자동화시스템」, 「e하나로 민원서비스 시스템」 등 다양한 시스템 개발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영업점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국내은행 최초로 윈도우비스타 운영체제에서 정상적인 인터넷뱅킹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e-금융 선도은행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고객만족을 실현하였다. 점차 증가하는 방문자와 고객의 니즈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홈페이지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증설하였고, 컨버전스(Convergence)뱅킹 발굴 및 시장선점을 위해 「프랜차이즈 e-뱅킹」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전자금융 선도은행으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해, 은행권 최초로 「보는 텔레뱅킹 Te AMO(떼아모) 서비스」, 영업점 및 거래업체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대고객 전용메신저 서비스」 등 혁신적인 新서비스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당행의 IT 부문은 「2007 대한민국 디지털경영혁신대상」에 선정, 「KOREA WEB AWARDS」 최고대상 수상, 「인터넷서비스 평가」 1위 수상, 국내 최

초「IT BCM(영업연속성관리) 인증」등을 획득하여 전자금융시대를 선도하는 리딩뱅크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하였다.

바. 여신심사 및 리스크 관리 업무 개선

당행은 중소기업전담 금융기관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과 신용대출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여신심사 개선, 다양한 금융기법 개발 및 건전성 확보에 주력하였다.

중소기업의 건전여신 확대를 위해 실질적인 업종전문 심사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협의체를 운영하였으며, 금융시장 변화에 부합한 전결권에 대한 합리적 재조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승인여신 재심사제도를 실시하여 영업점과 본부와의 견해 차이를 해소하고 현장검증을 통한 여신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심사역 성과평가제도 도입 및 현장심사제도를 강화하여 심사역의 적극적인 심사업무 수행 및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였다.

아울러 우량기업의 금융편의도 제고를 위해 업체당 총 여신한도를 일괄 설정하여 운용하는「신용한도제」를 확대하여 신속한 여신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벤처기업, 첨단기술 보유업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지방소재기업 등 성장잠재력이 큰 업체를 대상으로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해외점포 여신심사의 효율성 및 여신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중국 등 국외점포 Supporter 심사역을 재지정 운영하였으며, 업종별로 다수의 현지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섬유, 기계, 전기·전자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해외 현지법인 실태조사를 강화하였다.

당행은 기술력 및 사업성이 우수하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워크아웃 제도를 업그레이드 시킨「기업 Change Up Program」을 시행하였고,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상업체 추천권 확대, 채권은행간 이해관계 조정, 여신전결권 완화, 영업점에 대한 손익조정의 현실화 등을 추진하였다.

신용위험이 높은 고객의 부실징후를 상시모니터링 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EWS)」의 선별력을 개선하여 자산건전성을 강화하였다. 다양한 재무분석정보 제공으로 여신심사 및 마케팅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재무컨설팅 지원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외에도 보다 철저한 산업분석을 위해 153개 Peer 업종에 대한 산업별 특성, 업종현황, 재무상황 등을 조사·분석한 「2007년도 산업편람 및 산업재무분석」을 발간하여 각 영업점에 배포하였다.

한편, 신BIS협약 시행에 대비하여, 신BIS협약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사전운용요건을 충족하는 신용평가모형 및 신용평가제도를 전면 시행하였다. 또한 「신용평가시스템의 적합성 검증 체계」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신BIS 협약 기준을 반영한 리스크관리 기본계획 수립은 물론, 관련 내규도 전면 개편해 차질없는 신BIS협약 시행에 대비하였다. 합리적이고 사전적인 리스크관리 기능 제고를 위해 리스크관리조직 기능 강화, 「건전성 예측지수」 개발, 신용리스크 부문 「시나리오별 대응계획」 마련, 「자산건전성분류 및 대손충당금적립기준」 개정, 「신용등급 조정제도」 개선 등을 시행하였다.

사. 수익다변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당행은 금융시장의 개방, 고객니즈의 다양화, 고령화사회의 진입 등 새로운 금융환경의 시대가 진행됨에 따라, 방카슈랑스, 종합금융업무, PB업무 등 비이자수익 부분을 더욱 강화하여 수익다변화를 추진하였다.

첫째 방카슈랑스 부문은 고객중심의 경쟁력 있는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였다. 직원의 보험판매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방카 Specialist 과정」 운영, 「자산종합관리와 연계한 보험특화 세미나」 개최, 「판매담당자 마케팅 과정 교육」 실시 등을 추진하였다. 이밖에도 「방카슈랑스 경진대회」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영업점별 특성 및 수준을 감안한 「맞춤형 방카컨설팅」을 확대하여 효율적인 마케팅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결과, 2007년말 현재 보험판매수수료는 전년대비 28.8% 증가한 956억원, 조정보험료는 전년대비 27.6% 증가한 708억원을 기록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방카슈랑스업무 취급실적

단위 : 억원, %

구분	2005년말	2006년말		2007년말	
	금액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보험판매 수수료	563	742	31.8	956	28.8
조정 보험료	443	555	25.3	708	27.6

주 : 조정보험료: 초회보험료를 판매수수료의 수익기여도에 따라 상품별·납입주기별로 환산한 보험료

둘째 종합금융부문은 영업점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고객 데이터 정보를 활용하여 대상기업의 조기발굴 및 관리를 통한 영업활성화를 추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M&A 금융주선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지원, 다양한 구조화상품의 신규투자 확대와 사업성이 우수한 부동산 PF 사업의 선별 추진 등으로 우량 건전자산 및 비이자수익 증대에도 많은 기여를 해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입지문제를 해결하고자 화성시 산업단지, 양산어곡 2차 산업단지 등 「기은맞춤형 산업단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2007년말 현재 투자금융부문 실적은 전년 대비 120% 증가한 10,657억원, 부동산 PF부문의 실적은 전년 대비 51.2% 증가한 2조 4,451억원을 기록하였다.

종합금융업무 취급실적

단위 : 억원

		2006년말	신규	상환	2007년말	증감액(△)
투자	지분투자	1,197	1,159	335	2,021	824
	자산유동화	1,456	437	882	1,011	△445
	M&A	2,195	5,936	506	7,625	5,430
	소계	4,848	7,532	1,723	10,657	5,809
PF	SOC	4,539	4,601	1,324	7,816	3,277
	부동산금융	11,631	7,719	2,715	16,635	5,004
	소계	16,170	12,320	4,039	24,451	8,281
국제투융자 (백만달러)		16,247 (1,748)	3,997 (426)	2,008 (230)	18,236 (1,944)	1,989 (196)
총계		37,265	23,849	7,770	53,344	16,079

주 : 국제투융자 적용환율 : 1달러=938.2원(' 07.12.31 기준)
주 : 확정치 실적

셋째 PB 사업부문은 국내외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PB고객의 종합자산관리서비스 수요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우량고객에 대한 PB서비스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여 타행과의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초우량 고객에 대해서는 금융·부동산·세무 등의 통합솔루션을 제공하는 특별서비스로 「TOP Service」활동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또한 당행을 거래하는 우량고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권유마케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페라 '가면무도회', '라트라비아타' 등에 고객을 초청하는 등 다양한 문화마케팅 행사를 개발하였다. 이외에도 영업점 단위의 고객자산관리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중장기적인 투자문화를 조성하고자, 행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심의협의체에서 투자지역별 투자의견을 제공하는 「펀드리서치 기능」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PB고객에 대한 2007년말 관리자산 실적은 전년 대비 23.3% 증가한 7조 7,980억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PB 전문점 및 인력 현황

단위 : 개, 명

	2006년말	2007년말	증감액(△)
PB전문점	152	158	6
PB 인력	158	165	7

PB고객 관리실적

단위 : 억원

	2006년말	2007년말	증감액(△)
총예금	47,382	53,976	6,594
신탁 및 수익증권	15,851	24,004	8,153
합계	63,233	77,980	14,747

아. 고객만족 및 사회공헌활동 강화

당행은 고객만족이 기업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며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는 인식아래 전행적인 고객만족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전국 CS 경진대회, 상품판매 및 고객응대 스크립트 공모, CS 체조 동영상 공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7 CS Boom-Up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CS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우수사례는 전영업점에 알려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하였다.

영업점 CS교육의 질적 편차를 극복하고 전행 동일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IBK 위성방송망을 통한 「아침을 여는 CS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창구응대 매뉴얼」 등을 개발하여 표준화된 교육 컨텐츠 전파에 최선을 다하였다. 이외에도 당행 知CAMP 초기화면에 「CS마당」을 설치하여 CS관련소식, 고객불만·칭찬 사례, 교육자료 등 CS정보를 상시 제공하였다.

이와 함께 고객社에 대한 CS교육을 통하여 당행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거래기업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거래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Win-Win 교육」을 실시하였

고, Cyber 연수원의 CS아카데미를 통해 체계적인 CS교육 및 관련정보 공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같이 꾸준하게 CS중심 경영을 추진한 결과,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의 「2007 대한민국 고객만족경영대상」과 한국일보사 주관의 「2007 대한민국 서비스 만족대상」을 수상하였다.

한편, 당행은 사회공헌사업을 기업생존의 핵심가치로 인식하고 '따뜻한 세상, 밝은 미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5억원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후원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으며, 소상공인의 생계위협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추진된 「소상공인 공제사업」에 30억원을 출연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주적 경제활동을 돕고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등 중소기업에 특화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06년에 설립한 기은복지재단을 통하여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의 치료비를 후원하고 생활형편이 곤란하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근로자 가정의 복지증진에도 힘을 보탰다. 이와 더불어 은행과 임직원이 똑같은 금액을 기부하는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방식의 「기은사랑나눔기금」을 조성하여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교육을 후원하였고, 백혈병어린이 및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 인증관리제」와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제」 등을 도입하여 임직원의 봉사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참여형 자원봉사활동을 조직문화로 발전시켰다.

이외에도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꿈나무 금융경제교실」 후원, 문화 및 예술단체에 대한 메세나 운동 후원,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마을 후원, 1사1산 자연보호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아시아경제」 신문이 주관한 「2007 대한민국 금융문화대상」(사회공헌 은행부문)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제5절 재무상황

2007년말 현재 당행의 은행계정 자산총액은 대출금 등의 증가로 전년말 대비 15.3% 증가한 119,304,171백만원을 기록하였다.

부채 총액은 전년말 대비 15.5% 증가한 112,619,915백만원에 달하였는데 이는 주로 예수금 증가 등 유동성 부채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었다. 또한 자본총액은 이익잉여금의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13.3% 증가한 6,684,256백만원에 달하였다.

한편 손익계산서상 1,167,918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는데 이는 중소기업대출 이자수익 등 영업수익의 증가에 주로 기인한 것이다.

1.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제47기 2007년 12월 31일 현재
제46기 2006년 12월 31일 현재

【은행계정】 (단위:백만원)

과 목	금액 제47기		금액 제46기	
【자 산】				
Ⅰ. 현 금 및 예 치 금		3,563,601		2,369,386
1. 현 금	897,818		1,089,632	
2. 외 국 통 화	145,664		98,085	
3. 원 화 예 치 금	2,330,999		1,017,576	
4. 외 화 예 치 금	189,120		164,093	
Ⅱ. 유 가 증 권		21,129,233		18,900,358
1. 단 기 매 매 증 권		1,020,061		927,582
(1) 국 공 채	102,050		268,370	
(2) 금 융 채	830,174		651,315	
(3) 사 채	-		-	
(4) 주 식	72,178		7,897	
(5) 외 화 단 기 매 매 증 권	15,659		-	
(6) 기 타			-	
2. 매 도 가 능 증 권		11,733,254		11,505,996
(1) 주 식	1,332,654		1,446,844	
(2) 출 자 금	79,144		32,625	
(3) 국 공 채	819,324		660,817	
(4) 금 융 채	4,663,663		4,186,128	
(5) 사 채	1,373,855		1,562,735	
(6) 외 화 매 도 가 능 증 권	1,787,113		1,652,180	
(7) 기 타	1,677,501		1,964,667	
3. 만 기 보 유 증 권		8,032,398		6,215,432
(1) 국 공 채	2,059,465		1,927,319	
(2) 금 융 채	3,628,080		2,727,353	
(3) 사 채	2,344,853		1,560,760	
(4) 외 화 만 기 보 유 증 권	-		-	
4. 지 분 법 적 용 투 자 주 식		343,520		251,348
(1) 주 식	219,863		186,464	
(2) 출 자 금	123,657		64,884	
Ⅲ. 대 출 채 권		89,268,183		77,997,258
(대 손 충 당 금) (-)	(1,327,321)		(963,110)	
(현 재 가 치 할 인 차 금) (-)	(-)		(-)	
(이 연 대 출 부 대 수 익) (-)	(32,459)		(22,098)	
1. 원 화 대 출 금	81,068,149		70,116,472	
2. 외 화 대 출 금	4,203,698		3,564,530	
3. 매 입 어 음	44,139		51,180	
4. 매 입 외 환	797,407		782,034	
5. 내 국 수 입 유 산 스	1,178,192		914,392	
6. 지 급 보 증 대 지 급 금	7,784		10,073	
7. 팩 토 링 채 권	-		3,055	
8. 신 용 카 드 채 권	2,284,791		2,113,685	
9. 콜 론	100,385		479,282	
10. 사 모 사 채	40,550		33,115	
11. 대 여 금	762,577		914,648	
12. 출 자 전 환 채 권	291		-	
13. 환 매 조 건 부 채 권 매 수	140,000		--	
Ⅳ. 유 형 자 산		1,162,956		1,080,672
1. 유 형 자 산	1,842,849		1,702,675	
(감 가 상 각 누 계 액) (-)	(679,893)		(622,003)	
Ⅴ. 기 타 자 산		4,180,198		3,088,128
1. 보 증 금	548,673		490,833	
2. 미 수 금	38,342		56,661	
3. 미 수 미 결 제 현 물 환	1,051,694		400,093	
4. 미 수 수 익	500,929		425,794	
5. 선 급 비 용	6,437		4,325	
6. 이 연 법 인 세 자 산	868		473	
7. 파 생 금 융 자 산	1,037,555		827,805	
8.무 형 자 산	31,971		28,916	
9.미 회 수 내 국 환 채 권	878,776		748,036	
10.잡 산	84,953		105,192	
자 산 총 계		119,304,171		103,435,802

과 목	금액 제47기		금액 제46기	
【부 채】				
Ⅰ. 예 수 부 채		36,863,602		37,004,623
1. 요구불예금		9,013,333		9,062,483
(1)원화요구불예금	7,983,965		8,135,834	
(2)외화요구불예금	1,029,368		926,649	
2. 기한부예금		27,850,269		27,942,140
(1) 원화저축성예금	16,961,870		19,229,431	
(2) 상호부금	3,353,356		2,815,926	
(3) 양도성예금	7,049,227		5,300,107	
(4) 외화저축성예금	485,816		596,676	
Ⅱ. 차 입 부 채		69,509,454		55,462,601
1. 원화차입금	12,617,026		12,163,158	
2. 외화차입금	2,889,925		2,552,538	
3. 환매조건부채권매도	5,677,968		4,757,553	
4. 매출어음	1,110,950		1,467,288	
5. 기금예탁금	10,046		8,425	
6.콜머니	2,619,072		1,628,817	
7. 사채	44,584,467		32,884,822	
(사채할인발행차금) (-)	(-)158,905		(221,640)	
(1) 원화사채	40,902,791		30,815,635	
(2) 외화사채	3,840,581		2,290,827	
Ⅲ. 기 타 부 채		6,246,859		5,071,225
1. 퇴직급여충당부채	302,863		246,983	
(국민연금전환금) (-)	(52)		(52)	
(단체퇴직보험예치금) (-)	(227,055)		(181,982)	
2. 지급보증충당부채	28,120		12,988	
3. 미사용약정충당부채	124,672		128,245	
4. 기타충당부채	54,408		34,320	
5. 신탁계정차	1,035,064		1,184,351	
6. 미지급금	49,716		24,663	
7. 미지급미결제현물환	1,051,666		400,128	
8. 미지급배당금	82		74	
9. 미지급비용	1,366,011		1,005,676	
10. 선수수익	92,741		84,673	
11. 수입보증금	115,851		218,777	
12. 이연법인세부채	84,858		114,330	
13. 파생금융상품	1,102,473		753,292	
14. 미지급내국환채무	438,241		516,181	
15. 잡부채	657,200		528,578	
부 채 총 계		112,619,915		97,538,449
【자 본】				
Ⅰ. 자 본 금		2,291,385		2,291,385
1. 보통주자본금	2,025,758		2,025,758	
2. 우선주자본금	265,627		265,627	
Ⅱ. 자 본 잉 여 금		6,751		6,751
1.기타자본잉여금	6,751		6,751	
Ⅲ. 자 본 조 정		(-)460		(-)460
1. 자기주식	(-)460		(-)460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61,662		590,824
1.매도가능증권평가익	460,156		590,599	
2. 지분법자본변동	3,264		914	
3. 부의지분법자본변동	(-)1,758		(-)689	
4. 기타	-		-	
Ⅴ. 이 익 잉 여 금		3,924,918		3,008,853
1. 법정적립금	876,772		612,855	
2. 임의적립금	1,880,228		1,342,675	
3. 미처분이익잉여금	1,167,918		1,053,323	
자 본 총 계		6,684,256		5,897,353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19,304,171		103,435,802

2.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

제47기 2007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제46기 2006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은행계정】 (단위:백만원)

과 목	금액			
	제47기		제46기	
Ⅰ. 영 업 수 익		**10,353,493**		**8,163,545**
1. 이 자 수 익		**6,888,877**		**5,559,358**
(1) 예 치 금 이 자	31,822		14,973	
(2) 유 가 증 권 이 자	860,844		744,048	
(3) 대 출 채 권 이 자	5,872,576		4,691,690	
(4) 기 타 이 자 수 익	123,635		108,647	
2. 유가증권평가및처분이익		**608,659**		**263,884**
(1)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35,029		20,794	
(2)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2,258		279	
(3)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489,684		137,277	
(4)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환입	23,971		2,809	
(5) 만기보유증권상환이익	32,264		66,033	
(6) 만기보유증권손상차손환입	25,453		36,692	
3. 대출채권평가및처분이익		**312**		**240**
(1) 대손충당금환입액	-		-	
(2) 대출채권처분이익	312		240	
4. 외환거래이익		**663,035**		**556,489**
5. 파생금융상품관련수익		**1,508,248**		**1,295,793**
(1) 파생금융상품거래이익	760,963		750,594	
(2) 파생금융상품평가이익	663,467		524,909	
(3)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관련이익	83,818		20,290	
6. 수 수 료 수 익		**475,541**		**403,885**
(1) 수 입 수 수 료	462,368		393,862	
(2) 수 입 보 증 료	13,163		10,022	
(3) 중도해지수수료	10		1	
7. 배 당 금 수 익		**184,235**		**54,237**
(1) 단기매매증권배당수익	179		477	
(2) 매도가능증권배당수익	184,056		53,760	
8. 기 타 의 영 업 수 익		**24,586**		**29,659**
(1) 신탁업무운용수익	18,944		26,345	
(2) 기 타 영 업 잡 수 익	5,642		3,314	
Ⅱ. 영 업 비 용		**8,797,981**		**6,749,301**
1. 이 자 비 용		**4,047,387**		**3,028,836**
(1) 예 수 부 채 이 자	965,977		959,558	
(2) 차 입 금 이 자	978,917		784,330	
(3) 사 채 이 자	2,021,987		1,247,050	
(4) 기 타 이 자 비 용	80,506		37,898	
2. 유가증권평가및처분손실		**142,649**		**88,639**
(1)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23,845		22,615	
(2)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5,306		2,441	
(3)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6,651		1,789	
(4)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12,416		2,582	
(5) 만기보유증권상환손실	-		1,000	
(6) 만기보유증권손상차손	94,431		58,212	
3. 대출채권평가및처분손실		**822,953**		**448,669**
(1) 대 손 상 각 비	666,586		381,581	
(2) 대출채권처분손실	156,367		67,088	
4. 외 환 거 래 손 실		**585,293**		**455,653**
5. 파생금융상품관련비용		**1,443,236**		**1,213,344**

과 목	금액			
	제47기		제46기	
(1)파생금융상품거래손실	727,756		707,038	
(2)파생금융상품평가손실	673,011		485,369	
(3)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관련손실	42,469		20,937	
6.수수료비용		**157,019**		**128,970**
(1)지급수수료	53,793		51,385	
(2)신용카드관련비용	103,226		77,585	
7.판매비와일반관리비		**1,293,054**		**1,080,754**
(1)급여	589,584		526,918	
(2)퇴직급여	133,552		83,595	
(3)복리후생비	84,623		76,083	
(4)임차료	24,927		19,201	
(5)접대비	1,777		1,230	
(6)감가상각비	106,050		93,421	
(7)무형자산상각비	7,082		2,110	
(8)세금과공과	82,362		68,594	
(9)광고선전비	54,342		27,717	
(10)기타판매비와일반관리비	208,755		181,885	
8.기타의영업비용		**306,390**		**304,436**
(1)기금출연료	202,143		185,842	
(2)지급보증충당부채전입액	15,131		-	
(3)미사용약정충당부채전입액	-		41,950	
(4)신탁업무운용손실	2,592		-	
(5)기타영업잡비용	86,524		76,644	
III.영업이익		**1,555,512**		**1,414,244**
IV.영업외수익		**101,339**		**67,571**
(1)유형자산처분이익	16,154		1,186	
(2)임대료	3,064		2,807	
(3)지분법이익	40,185		33,151	
(4)기타영업외수익	41,936		30,427	
V.영업외비용		**48,782**		**40,066**
(1)유형자산처분손실	751		105	
(2)지분법손실	646		408	
(3)기타영업외비용	47,385		395,536	
VI.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608,069**		**1,441,749**
VII.법인세비용		**440,151**		**388,426**
VIII.당기순이익		**1,167,918**		**1,053,323**
IX.주당순이익(단위:원)				
(1)기본주당순이익		2,549		2,299
(2)희석주당순이익		2,549		2,299

3. 대차대조표(신탁계정)

제47기 2007년 12월 31일 현재
제46기 2006년 12월 31일 현재

(단위:백만원)

과 목	금액			
	제47기		제46기	
1. 현 금 예 치 금		**307,532**		**30,208**
2. 유 가 증 권		**4,580,689**		**2,401,697**
국 채	547,758		881,341	
금 융 채	167,741		136,463	
지 방 채	13,526		17,630	
사 채	93,778		209,363	
주 식	78,985		97,315	
외 화 유 가 증 권	22,890		22,890	
매 입 어 음	3,320,803		663,677	
기 타 유 가 증 권	335,208		373,018	
3. 대 출 금		**28,760**		**36,586**
부 동 산 저 당 대 출	79		1,529	
수 익 권 담 보 대 출	25,270		28,040	
보 증 대 출				
증 서 대 출	118		5,331	
어 음 대 출			226	
기 타 대 출	3,293		1,460	
4. 사 모 사 채				
5. 콜 론				
6. 환 매 조 건 부 채 권				
7. 금 전 채 권		**45,343**		**142,134**
8. 동 산 부 동 산				
9. 기 타 자 산		**60,904**		**69,609**
미 수 금	4,262		3,857	
미 수 수 익	26,692		30,140	
잡 자 산	29,950		35,612	
10. 고 유 계 정 대		**969,262**		**1,099,065**
11. 현 재 가 치 할 인 차 금(-)				**(3)**
12. 채 권 평 가 충 당 금(-)		**1,213**		**(1,842)**
자 산 총 계		**5,991,277**		**3,777,454**

(단위:백만원)

과 목	금액			
	제47기		제46기	
1. 금전신탁		**5,774,516**		**3,529,270**
불특정금전신탁합동운용	71		73	
적립식목적신탁합동운용	5,859		10,433	
가계금전신탁합동운용	11,911		16,077	
개발금전신탁합동운용				
노후생활연금신탁합동운용	3,175		6,393	
기업금전신탁합동운용	5,307		6,485	
국민주신탁합동운용	1,914		2,104	
개인연금신탁합동운용	482,607		539,854	
가계장기신탁합동운용	11,340		25,170	
근로자우대신탁합동운용	1,805		3,965	
신종적립신탁합동운용	17,705		45,933	
특정금전신탁	4,746,794		2,407,540	
단위금전신탁합동운용	200		18,895	
추가금전신탁	13,598		27,285	
퇴직신탁운용	283,465		270,242	
부동산투자신탁				
신개인연금신탁합동운용	5,610		5,686	
신노후생활연금신탁합동운용	15,281		33,299	
신근로자우대신탁합동운용				
연금신탁	81,929		71,695	
퇴직연금신탁	85,945		38,141	
2. 재산신탁		**45,343**		**142,134**
유가증권의신탁				
금전채권의신탁	45,343		142,134	
동산부동산의신탁				
3. 차입금		**146,108**		**82,700**
4. 기타부채				
선수수익	39,625		8,831	
미지급비용	248		273	
잡부채	106,235		73,596	
5. 특별유보금		**25,310**		**23,350**
부채총계		**5,991,277**		**3,777,454**

4. 손익계산서(신탁계정)

제47기 2007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제46기 2006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단위:백만원)

과 목	금액			
	제47기		제46기	
1. 신탁이익		**217,270**		**122,680**
불특정금전신탁이익	2		2	
적립식목적신탁이익	306		505	
가계금전신탁이익	526		723	
개발신탁이익				
노후생활연금신탁이익	72		175	
기업금전신탁이익	252		308	
국민주신탁이익	90		85	
개인연금신탁이익	22,554		17,137	
가계장기신탁이익	683		1,446	
근로자우대신탁이익	104		208	
신종적립신탁이익	829		2,958	
특정금전신탁이익	173,560		81,690	
단위금전신탁이익	280		2,372	
추가금전신탁이익	1,451		1,282	
퇴직신탁이익	9,512		8,888	
부동산투자신탁이익				
신개인연금신탁이익	194		196	
신노후생활연금신탁이익	1,089		1,976	
신근로자우대신탁이익				
연금신탁이익	2,782		2,096	
퇴직연금신탁이익	2,984		633	
2. 재산신탁이익				
유가증권신탁이익				
금전채권신탁이익				
동산부동산신탁이익				
3. 차입금이자				
4. 지급수수료		**161**		**153**
5. 파생금융상품거래손				**516**
6. 유가증권관련비용		**48,676**		**10,078**
유가증권매매손	4,102		6,546	
유가증권상환손	36,364		222	
유가증권평가손	8,210		3,310	
7. 기금출연료		**1,790**		**974**
신용보증기금출연금	16		38	
신탁보험료	1,774		936	
8. 세금과공과				
9. 신탁보수		**15,295**		**23,921**
10. 기타비용				**948**
11. 특별유보금전입		**2,850**		**3,062**
12. 채권평가충당금전입		**5**		**4**
손실금계		**286,047**		**162,336**

(단위:백만원)

과 목	금액			
	제47기		제46기	
1. 예 치 금 이 자		**3,288**		**572**
2. 유 가 증 권 이 자		**174,818**		**100,710**
국 채 이 자	28,540		32,891	
금 융 채 이 자	7,062		10,066	
지 방 채 이 자	743		579	
사 채 이 자	7,491		8,873	
주 식 배 당 금	577		437	
외 화 유 가 증 권 이 자	1,288		1,284	
매 입 어 음 이 자	106,777		25,096	
기 타 유 가 증 권 이 자	22,340		21,484	
3. 대 출 금 이 자		**2,213**		**1,655**
부 동 산 저 당 대 출 이 자	145		101	
수 익 권 담 보 대 출 이 자	1,664		1,101	
보 증 대 출 이 자				
증 서 대 출 이 자	182		385	
어 음 대 출 이 자	96			
기 타 대 출 이 자	126		68	
4. 사 모 사 채 이 자				
5. 콜 론 이 자		**5,140**		**2,404**
6. 환매조건부채권매입이자		**92**		
7. 금 전 채 권 이 자				
8. 파 생 금 융 상 품 거 래 익				**54**
9. 동 산 부 동 산 수 익				
10. 기 타 수 입 이 자				
11. 유 가 증 권 관 련 수 익		**29,838**		**27,292**
유 가 증 권 매 매 익	18,876		18,889	
유 가 증 권 상 환 익	8,880		1,344	
유 가 증 권 평 가 익	2,082		7,059	
12.수 입 수 수 료		**147**		**243**
13.기 타 수 익		**3,382**		**1,833**
14.고 유 계 정 대 이 자		**65,428**		**23,689**
15.특 별 유 보 금 환 입		**1,080**		**2,400**
16.채 권 평 가 충 당 금 환 입		**621**		**1,484**
이 익 금 계		**286,047**		**162,336**

부 록

· 임원 명단

· 기구 도표

· 주요 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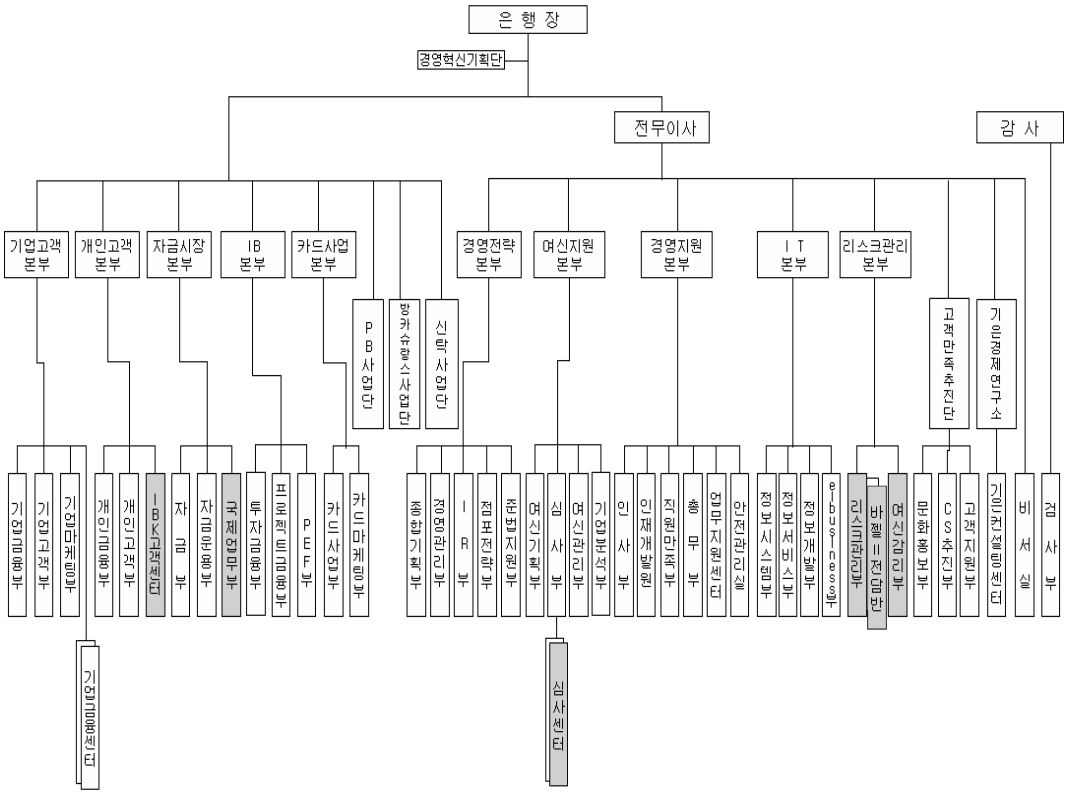
임 원 명 단

(2007년말 현재)

은 행 장	윤 용 로
전무이사	이 경 준
감 사	윤 종 훈
이 사	이 경 렬
이 사	현 병 택
이 사	조 준 희
이 사	한 영 근
이 사	손 태
사외이사	이 두 호
사외이사	정 광 선
사외이사	이 경 형
사외이사	이 재 철

기 구 도 표 (2007년말 현재)

『10사업본부 4사업단 1연구소 42부서(임시조직 제외)』



주 요 일 지

(2007년)

1月	2	시무식
	4	기업은행 New CI「나의 성공날개(Win-Wing)」선포식
		「IBK 코리보연동예금」판매
	8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개최
	15	「내고장 기업대출」판매
	22	「대한민국企UP통장」출시
	25	정해년 설맞이 복합ELD 판매
	26	「대신StepDown 2Stock 파생상품투자신탁 B1호」판매
	31	대학(원)생 대상 연구논문 및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2月	5	「그랑프리 골든벨 주가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14호」판매
	6	전산문의 자동처리 시스템 특허권 획득
	7	순익 1조원 클럽 가입
	14	「성공날개 통장」판매
	20	「기은SG 링크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주식투자신탁」판매
	23	경남 양산에「맞춤형 공업단지」조성
	26	「I am 카드」출시
3月	5	「랜드마크 투스타 파생상품투자신탁 SN-1호」판매
	7	「새봄맞이 금리옵션형 정기예금」판매
	8	제2기 Campus IBK 대학생 홍보대사 선발
		인터넷뱅킹 최우수은행 연속 3회 선정
	14	중소기업 CEO를 위한 맞춤형 기업공개(IPO) 설명회 개최
	19	「지자체상생협력대출」출시

20 「금리옵션부 기업운전자금 대출」출시
21 「뉴-디스카운트뱅크시스템」실시
22 「개인 MMF용 브릿지예금」판매
26 「성공날개 金Up 사랑보험」 출시
27 「창업안내강좌」개시
29 「그랑프리 골든벨 주가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 15호」

4月 2 '셀프네이밍 적금' 판매
13 「그랑프리 골든벨 주가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 16호」
16 「e-모아 서비스」 업무제휴 협약 체결
18 「자산관리 투어 세미나」 개최
19 제5회 2007년 대한민국 서비스 만족대상 수상
20 결식아동돕기 행사 1천만원 기탁
25 「대신 StepDown 2Stock 파생상품투자신탁 B2호」 판매
27 「거래 중소기업 모범사원」표창
29 '하오(好) 위안화 송금 서비스' 시행

5月 1 「WITH family 이벤트」 실시
2 「사업용 계좌 대한민국金UP통장」 판매
8 「서울 Dual Star 파생상품투자신탁 S-9호」 판매
16 「엠씨스퀘어 리빙세이브」카드출시
21 「그랑프리 골든벨 주가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 17호 판매
26 「환전 택배서비스」 시행
28 「서울 Dual Star 파생상품투자신탁 S-10호」판매
30 벽지 학교 결식아동 돕기 2천만원 기탁

6月 1 「동양 2Star 2Y 파생상품투자신탁 14-1호」판매
「IBK 세계로 환전 페스티벌」 실시
3 사회복지시설 지원
17 골프장 자금관리서비스(CMS) 개시
28 「전자상거래로 원자재 구입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출시
29 「I am Pastor 카드」 판매

7月 1 사랑나눔 실천 「스타통장」판매
3 e-branch 제7회 「대한민국 e금융상」 大賞 수상
6 칭다오 지점 「인민폐 업무」 개시
20 「환경사랑통장 및 카드」 판매
24 「제4회 중소기업인 명예의 전당 헌정대상자발표」
시가총액 10조원 돌파

8月 1 은행권 최초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
전자상거래 전용 대출상품 「싸이클-론」판매
2 신세대 홍보공간 'Amigo Lounge' 개점
6 창립기념 「더블찬스정기예금」 판매
7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치료비 무상 지원
8 「인디아 인프라 주식투자신탁」 판매
9 소상공인공제사업에 40억원 기부 협약 체결
13 「I Plan 통장」 출시
21 수해복구 및 추석 자금 3000억원 공급
22 「대신 StepDown 2Stock 파생상품투자신탁 B4호」판매
30 「사업장마련 맞춤대출」 출시

9月 10 TV뱅킹서비스 시행
17 찾아가는 「CEO 서비스」실시
19 「산업단지 개발사업」 협력 업무협약
26 「포스코 협력업체 전용 대출상품」 출시

10月 1 기업전용 통신료 할인 T로밍 카드 출시
4 장수기업 우대 「플래티늄기업예금」 출시
5 e-branch 제11회 「대한민국 e비즈니스 대상」 최우수상 수상
10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전용 대출상품」 출시
15 「그랑프리 골든벨 ELS 20호 펀드」 판매
18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에 장학금 지급
19 「전자랜드-IBK 카드」 판매
29 「마이 Dual Star 파생상품투자신탁 K-2호」 판매

11月 11 「눈으로 보는 텔레뱅킹 서비스」 시행
12 「한국중부발전 협력업체 저리대출 상품」 출시
13 사랑의 연탄 10만장 후원
19 은행권 첫 「프랜차이즈 e-모아 서비스」 시행
「아이플랜 정기예금」 판매
21 「서류 제출 없는 은행 거래」 첫 도입
22 「IBK차인표 사랑나눔예금」 판매
29 근로복지공단에 자금관리시스템(CMS) 제공

12月 1 소주지점 개점식
17 WINTER 환전 페스티벌 실시
20 「고려 e-스쿨 수강생 학원비 관리서비스」 제공